

사.생.결.단

508

## 1. 인트로

암전 위에 점점 크게 들려오는 소음.

화면 밝아지면 달리는 자동차 두 대의 굉음인 걸 알 수 있다.

미친 듯이 운전하는 도경장과 상도의 얼굴이 교차로 보여진다.

둘의 얼굴, 먹이를 눈 앞에 두고 경쟁적으로 달려드는 짐승과 같다.

굉음이 고조되고 태풍처럼 회전하는 타이어가 화면에 꽉 차는 순간...

쿠-웅! 귀청을 찢는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화면을 덮친다.

대폭발 앞에 넋을 잃은 도경장과 상도의 충혈된 눈알 화면 가득 흔들린다.

버섯구름 모양으로 하늘을 향해 치솟는 연기가 슬로우모션으로 보이고

그 위에 타이틀 박힌다.

사. 생. 결. 단.

## 2. 오프닝 몽타쥬

타이틀 사라지고 웅장하지만 경쾌한 리듬의 음악 흐르며,

뉴스 화면과 신문기사의 크로우즈업들 빠르게 흐른다.

- IMF를 발표하는 총리, 화면 가득 기자들의 후레쉬가 터진다.

신문기사 <97년 11월 대한민국 IMF 관리체제 돌입. 전국에 실직자 500  
만명 추산 >

- 은행 앞에서 시위하는 퇴출 직장인들을 보여주는 화면.

<부산 동남은행 사상 초유의 무더기퇴출, 실직 은행원 일가족 음독자살>

- 공사가 중지된 폐허같은 건설현장을 보도하는 화면.

<부산지역 건설업 무더기 도산. 생계형 범죄 증가 >

- 부산의 유흥가 거리를 훑어 보여주는 보도 화면.

발광하는 네온싸인, 길가를 점령한 노점상, 길보드 리어커, 빼끼들,

삼삼오오 몰려다니는 부산 유흥가 선수들의 독특한 패션들.

이 화면들 위에 신문기사 오버랩된다.

<경기침체로 실외에 빠진 시민들 향락추구형 마약 투약 급증 >

<마약의 도시 부산, 베일 속의 3대 판매조직이 건국 이래 최대의 호황>  
<98년 12월 현재 부산의 중간 판매책 수백명 예상!!>

### 3. 실내. 오피스텔(판매 준비 몽타쥬) - 저녁

- 음악 이어지고, 위의 신문기사(신문지) 위에 쏟아지는 하얀 덩어리들.
- 히로뽕 덩어리를 전자저울로 재 10g 단위로 자르는 손 크로우즈업.
- 명함사진 봉투 하나에 10g 조각 하나씩을 넣고 봉한다.
- 수십개의 봉투가 만들어지자 조심스레 가방에 담는 손.
- 창 밖의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열심히 작업하는 실루엣 둘이 보인다.

### 4. 실외. 수양 유흥가(주문량 받는 몽타쥬) - 밤

네온사인과 노점상, 흥청대는 인파가 바글바글한 거리를 보여주는 화면.  
그 화면 위에 목소리 들려온다.

#### 목소리

(보이스 오버) 수양구 물락동...육백여개의 유흥업소와 음  
식점, 백여개의 숙박업소 그리고 뜨내기 노점을 합치서  
3만명에 업주와 종업원이 우글거리는 곳...나에 나와바라!

목소리 끝남과 동시에 누군가가 화면 안으로 쭉- 들어서면 카메라 그의  
뒷모습을 쫓는다.

술집사장, 달건이, 나가요 등과 인사를 나누지만 사실은 단골 고객들에게  
주문량을 받는...중간 판매책이다. 그의 속사포같은 말주변.

#### 중간 판매책

...싸장님 장사 잘 되시죠? 세칸요? 걱정 폭 놓으소, 10시  
해운대!...언니 저게 손님 왔네, 오케~ 야전삽 하나, 오늘  
갈冲动- 꽉 풀어주께...아이구 행님! 예? 알았소 한 짹대  
기, 글루 오소!...오~ 팬싱선쑤~ 선쑤는 선불이데이, 신용

사회찮어, 맘대루해!...머? 씨발년아 난 기냥 디비져 자!...

판매책의 뒤에서 열심히 주문량을 받아 적는 고사바리 하나가 보인다.

#### 5. 실외. 도심 여러 곳(판매 몽타쥬) – 밤

- 분주한 거리, 해운대 바닷가, 나이트 클럽...등 약속 장소를 멀리 차 안에 서 지켜보는 판매책...얼굴이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 계속 장소를 바꿔 주문자를 뻥뻥이 돌리는 판매책.
- 룸싸롱 사장, 나가요 등 아까의 주문자들 안달이 난다.
- 그렇게 두세번...확신이 들자 판매책이 안전신호를 하면 오토바이에 탄 고사바리가 돈과 물을 교환한다.
- 치밀한 이중 경계방식이 반복되고 손가방에 점점 현금이 쌓이는 와중에 판매책의 나레이션 깔린다.

#### 판매책

(보이스 오버) 그 3만의 경제인구 중, 약을 자체를 못해  
가 외상값 짚을 능력도 없는 신용불량자덜을 제하고 우  
등고객이 년 평균 천여명! 짜바리덜 용돈, 술값 등 보험  
료 빼고 나쁜...무사고, 마진율 삼백프로! 염산덩어리를 녹  
이서 즈그 혈관에 쏴넣고 천국에 달콤함을 느끼는 바보  
들 덕분에! 내는 기똥찬 벤.쳐.사.업.가. 가 되는 기라!!

#### 6. 실외. 수양 유흥가 거리 – 밤

나레이션 끝나며 현금 다발이 쌓인 가방에서 카메라 주욱- 빠지면,  
휘황찬란한 거리를 배경으로 전신이 훤히 드러나는 판매책의 모습...  
발리 구두에 베르사체 바지, 알마니 셔츠 입고 로렉스 금통에 금목걸이...  
명품으로 도배한 폼생폼사 양아치...히죽- 웃는 그의 얼굴에서 스텁모순.

자막 < 이상도 – 5년 경력 중간 판매책 그리고 야당 > 꽉꽉 뜯다.

스톱모순 풀리며 거리를 따라 경쾌하게 걷기 시작하는 상도.  
그 뒤를 따라 역시 걸렁히 걷는 고사바리, 성근.  
상도, 흡족한 얼굴로 바글바글한 거리를 훑어보는데...검은 색 슈퍼쌀롱 지  
나가자 챕싸게 다가간다.  
창이 열리고 창준이 나타나자 악수를 하는 척 차 안으로 슬그머니 상납금  
을 넣어주는 상도...‘물값입미더...’ 속삭이고 시선을 드는 순간,  
창준의 옆에 앉은 지영과 눈이 마주친다.  
후광을 받는 지영의 우아한 얼굴이 상도의 시점으로 보이며 스톱모순.

자막 < 김지영 - 가짜 명품 판매점 <럭셔리> 사장 > 평평 뜯다.

넋이 나간 상도, 스톱모순 풀리며 정신을 차리곤 정중히 고개 숙여 인사하  
지만 지영은 안중에도 없다.

창준과 진한 키스를 나누는 지영, 차에서 내린다.  
<럭셔리>란 간판의 가게로 들어가는 훤힐한 지영의 뒷모습.  
그런 지영을 입맛 다시며 훑어보는 상도, 성근의 어깨동무를 하며.

### 상도

캬~...저기 바로...천연맹품이라카는 긴데...

### 성근

(오토바이 봉- 가버리며) 예잉...또 맹품 타령...

## 7. 실외. 클럽 뽕네프 입구 - 밤

담배 물고 건들거리며 뽕네프 쪽으로 걸어오는 상도.  
그러다 입구 보고 갑자기 인상이 꽉 구겨진다.  
상도와 눈이 마주치는 노인, 꼬름한 옷차림으로 뺨쯤히 손을 흔드는 참으  
로 패배적인 눈빛. 그 얼굴에서 스톱모순.

자막 <이택조 - 마약전과 5범. 2년 전 지병악화로 병보석, 가석방중> 광  
팡 뜯다.

상도

(떨떠름하다) 우짠 일이고?

삼촌

(눈치보며) 그냥...지나는 길에...

상도, 무시하고 지나치려 하자 삼촌이 다급히 상도 팔을 잡으며

삼촌

저기...넬이 제삿날 아이가.

상도

(팔잡은 손을 쳐내고) 무슨 제사?

삼촌

느그 엄마...

상도

(잠시 노려보다 빙정대는 투로) 거 제사라카는 거는 조상  
님들을 모실 줄 아는 예의바른 인간들이나 하는 기다. 개  
돼지나 짐승들은 그런 거 안 한다. 아니, 할 줄 모른다.  
왜? 개새끼니까.

삼촌

야...이 자슥아...

상도

와? 제삿날 다가오니까 또 기분이 꾸리꾸리하나? 죄책감  
에 한 잔 안 하믄 몯 견디겠나? 그라믄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다. 한 짹대기 주까? 와? 모질라나?

삼촌, 화가 나서 얼굴이 급격히 붉어지더니 철썩- 상도의 뺨을 때린다.  
순간 매서운 인상으로 변하는 상도, 반사적 주먹으로 삼촌의 턱을 갈긴다.  
털썩- 힘 없이 바닥으로 나가 떨어지는 삼촌.

빼끼들이 안에서 나오다가 눈 앞의 광경에 주춤 놀라 선다.  
상도,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곤 삼촌의 어깨를 잡아 거칠게 일으킨다.  
삼촌이 엉거주춤 일어나자 외면하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 삼촌

(애원조로) 상도야...

상도, 등진 채 꺼지라는 손짓을 하더니 서둘러 계단을 내려간다.

## 8. 실내. 뽕네프 룸 - 밤

마이크를 불잡고 <행진>을 목청이 찢어질 듯 부르는 상도.  
상도가 10g 봉지 하나를 공중에 날리자 성근 옆에 앉았던 여자애들 비명  
을 지르며 달겨든다.

### 상도

(여자애들 보며 깔깔 웃다가) 성그나! 니 염산보지 그래  
밝히믄 쪳대가리 다 녹는다. 우리는 장사꾼이지 뽕쟁이가  
아이라!

소리치곤 목청이 터져라 노래 부르는 상도...노래인지 질규인지...  
순간, 갑자기 마이크와 반주기의 전원이 뚝- 꺼진다.  
눈을 감고 자기 흥에 취한 상도, 그런 줄도 모르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노  
래를 해댄다.  
성근 술이 확 깐 얼굴로 쟁싸게 여자애들 봉지를 뺏어 숨긴다.  
입구에서 노려보는 김형사, 계속되는 상도의 노래에 어이 없다는 얼굴.  
문득 반주가 없는 걸 느끼는 상도, 번쩍 눈을 뜨더니 ‘에이 씨발 머꼬~’  
하는데 쩌렁~ 복도를 울리며 들려오는 목소리.

### 목소리

방. 갑. 다-! 상도야!

어두운 복도로부터 룸 안의 불빛 아래로 등장하는 얼굴...

70년대 맵시의 양복에 팔뚝을 걷은 날렵하고 건장한 스타일의 남자.  
까칠한 수염, 검은 썬그라스 뒤에 날카로운 듯 냉소적인 미소,  
하지만 조금은 피곤한 안색이 연민을 불러 일으키는...  
도경장의 얼굴로 화면 꽂히면서 스텁모순.

자막 < 도진광 - 10년 경력 수양서 강력반 마약계 형사. > 빵빵 박힌다.

#### 9. 실내외. 도경장 차 안 - 밤

달동네, 항구, 빌딩숲, 거미줄같은 고가도로...부산 시내의 특이한 정경이  
펼쳐지며 그 안을 질주하는 도경장의 차.  
도경장 얼굴 위에 차창에 반사되는 도심 정경이 겹치며 도경장 나레이션  
시작된다.

#### 도경장

(보이스 오버) 4백만에 부산인구 중에 현직 뽕쟁이 그라  
고 미래에 마약 전과자 후보덜을 합치믄 열추 합계가 년  
평균 4만명!...실로 음총난 숫자다. 세상에 어뜬 범죄가 그  
인구에 백분에 일에 달하는 공범을 가지고 있겠노! 그러  
나 이 뽕쟁이덜이 깡패와 다른 점! 약 팔아는 둑는 게 지  
상최대에 목적으로 의리보다는 장사속이 앞서는 놈덜인  
기라. 바로 이 점을 노리는 수사방식이...망원! 시쳇말로  
야당이다. 약점을 잡힌 놈이 죽지 않을라믄...즈그 칭구형  
제라도 팔아야 하는기 뽕쟁이다!

조수석의 상도, 좀 전과 달리 기가 완전히 죽어 있고 그런 상도 모습이 뒷  
자석의 도경장 시점으로 보이며 도경장 나레이션 다시 시작된다.

#### 도경장

(보이스 오버) 내가 일마를 망원으로 키우는 이유는...타  
고난 장사꾼이기 때문이다! 즈그 엄마가 시동생 마약 꼬  
바리하다 불에 타 죽어봤다카는 기막힌 히스토리가 있는

놈인 데...

## 10. 후례쉬백

중년 여자가 황급히 약봉지를 숨기려 부엌으로 뛰어들고 가스렌지를 켜는 순간, 평- 가스통이 터지며 여자...불길 속으로 사라진다.  
불에 타는 달동네의 허름한 판자집.  
앳된 얼굴의 상도,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엄마를 부르며 절규한다.  
옆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삼촌과 눈이 마주치는 상도.  
상도, 커다란 화염 앞에서 흙바닥에 주저 앉아 눈물콧물 범벅이 된다.

## 11. 실내외. 차 안 - 밤

부산시내를 달리는 도경장의 차.  
사이드 미러에 비친 풀죽은 상도 얼굴을 꼬나보는 도경장.

### 도경장

(보이스 오버) 세상에 떨거져가 지가 멀할 수 있었겠노?  
배고프고 춥지...뽕~하믄 죽은 음마 생각에 치가 멀리지만  
배운 기 도둑질이라꼬 고사바리부터 했겠제...그라다보이  
회귀종 중에 회귀종! 물장사해묵음서 지 팔뚝엔 안 찔르  
는 진~짜 장사꾼인기라 일마가!

갑자기 상도의 뒤통수를 철썩 손바닥으로 때리는 도경장.  
상도, 폭- 앞으로 고개가 숙여지며 눈 앞에 <마약은 인류의 적>라고 써인 스티커가 붙은 게 보인다.  
상도, 스티커 보곤 입을 셀룩거리며 욕을 하다가 백미러에 비친 피곤한 도경장 얼굴을 본다.  
그 얼굴 위에 상도 나레이션 흐른다.

### 상도

(보이스 오버) 4년 전에 부산 마약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사건이 있었다. 도경장이 장철이라는 전국구를 잡다가 동료 형사가 염산에 페트린을 맞고 죽은 일이 있었다.

## 12. 후례쉬백

농업연구실로 위장한 비닐하우스 안은 제조 약품과 도구들로 가득하다. 경찰이 들이닥치고 제조자들이 저항하자 도경장, 날렵하게 때려눕히는데 최형사, 장철이 뿐만 염산을 얼굴에 맞고 쓰러진다. 최형사, 도경장의 품 안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얼굴이 녹아내린다. 최형사의 숨이 끊어지자 도경장, 총을 뽑아들고 장철의 머리에 겨눈다. 일축즉발...장철, 바지에 오줌을 지린다. 도경장, 방아쇠를 당길 듯 말 듯...

## 13. 실내외. 차 안 - 밤

부산 시내를 달리는 차 안, 뒷자리에 파묻혀 하품을 하는 도경장. 위 화면 위에 상도 나레이션 계속된다.

### 상도

(보이스 오버) 친행님과도 같았다는 글마가 숨이 끊길 때 까지...도경장은 꼬-옥...품에 안고 있었다간다. 그런데 장철은 거물이었다! 연줄있는 검찰에 서울지역 판매조직을 넘기고 보석으로 풀리나 중국으로 뛰어봤다!

## 14. 후례쉬백

-수양서. 집기를 던지고 열이 받아 난리피는 도경장을 형사들이 말린다.  
-장례식장. 최형사 영정을 둘러싼 병풍 뒤 관위에 엎드려 절규하는 최형사 부인. 실신 지경에 이르는 부인을 부축하다...와락- 총동적으로 끌어안

는 도경장. 부인, 도경장 목덜미를 붙잡고 떨어지지 않는다. 숨이 막혀오는 도경장...‘이 뭐지?...’ 하는 얼굴로 변한다. 상도 나레이션 이어진다.

### 상도

(보이스 오버) 그 일이 있은 후...망개질 테로 망개진 도  
챙장...부산 쟁이덜 사이에 한~심허게 유명한 존재가 돼

```
뿐
```

  
다. 자나 깨나 뽕쟁이덜 금품이나 갈취해묵는 민중에 곰  
팡이! 일명 돈챙장!

## 15. 실내외. 부산대교 위 차 안 - 밤

봉- 힘차게 부산대교 위를 질주하는 도경장의 차.  
차가 멈추면 부산대교 한복판.  
창밖으로 바닷가 야경이 휘황찬란하게 펼쳐져 있다.

### 도경장

캬~ 경치 직이네...안 글나?

### 상도

(답답하다) 오늘 와 이라는데요?

### 도경장

한 놈 작업할라카는데...쫌 도와겠으믄 싶은데...거 니 위에  
꼭대기가 누구드라...신회장인가?

### 상도

(황당하다) 에이 쟁장님도~ 지는 그 할배 얼굴구경도 몬  
해봤심마다~ 알면서...

### 도경장

(말 끊으며) 짭새말은 끝까지 들으야제 새꺄...그 할배 오  
른팔...판매 총책. 창주이!

상도, 어이 없는 얼굴로 잠시... 생각하다 지갑에서 돈뭉치 꺼내 내민다.

### 상도

솔직하게 말을 하지... (치사하고 아니꼽다) 이...답마다!

그러자 도경장, 인상을 팍- 쓰더니 김형사에게 눈짓하자 김형사가 봉지 하나를 내민다.

상도, 봉지를 보곤 금방 인상이 구겨진다.

### 도경장

방금..느그 작업실에서 쫓았으나. 김형사야, 이 을마녀치고?

### 김형사

200g이든...최하가 이년입미더. 쯧쯧 인자 쫓됐네...

### 도경장

(상도의 명품 목걸이 시계 등을 툭툭 치며) 어이~ 니 이  
거 다~ 포기하고 이년 드가 썩을 수 있겠어? 으~옹?

상도, 구겨진 인상이 서서히 풀리며 씨익 웃자 도경장도 따라 웃는다.

그 순간 차 문을 박차고 튀어 나가는 상도.

도경장과 김형사, 챙싸게 뛰쳐 나간다.

## 16. 실외. 부산대교 위 - 밤

상도, 발이 엉켜 회청거리는 바람에 도경장에게 뒷덜미를 잡힌다.

상도 머리를 헤드록해서 다리 난간에 걸치는 도경장.

상도, 고통에 겨워 으으으...신음을 내며 난간을 붙잡고 바둥거린다.

눈 아래 시커먼 강물이 자신을 빨아들일 듯 흘러가는 게 보인다.

### 도경장

(차분하게) 잘 들으라. 아이엠에프네 나라가 망했네 하는  
판국에 느그 뽕쟁이들이 하도 설치대가 한 마디로 부산

이 찍혔다. 그래서 부산 검찰청에 마약과가 생긴다칸다.  
마약시장에 대지진, 물갈이가 온다 이 말이다. 인자까지  
잘~ 해묵던 놈덜, 니 위에 제조책, 상선들...목이 우찌 될  
지는 내도 모런다.

### 상도

(바둥거리며) 쁨...쩝...놓고...

뒤에 섰던 김형사가 허공에 붕 떠 있는 상도 다리를 발로 톡- 치자 상체  
가 강 위로 떨어질 듯.....으악- 비명을 지르는 상도.

### 도경장

이번에는 진짜로 싹쓸이다 이 말이야. 니 줄줄이 같이 팔  
리 들으갈래 아이든 살아남을래? 묵직한 놈 해서...내 훈  
장타고 계급장 쁨 갈자! 그라모 니 구역은 내 챙기주께!  
물준다고 연락왔을 때 전화 한 통, 고것만 해도! 엉?

장면전환.

상도가 차 옆에 서 있고 도경장, 창 밖으로 약올리는 듯 약봉지 흔들며.

### 도경장

이건 우쭐까~?... (상도가 돈뭉치를 주자 잽싸게 받아넣고  
봉지 돌려주며) 마- 인생에서 얻는 기 머꼬? 세상을 보는  
눈치 아이가! 짱구 잘 굴리바~

붕- 차가 출발한다. 넓은 대교 위에 훙뎅그렁 남겨진 상도.

## 17. 실외. 상도 오피스텔 - 밤

상도, 여기저기 뒤져 난장판이 된 자신의 호화판 오피스텔을 훑어본다.  
성근이 '그 새끼...또 돈달라는거죠?' 투덜거리며 청소를 하고,  
상도는 소주를 한 모금 들이키며 발코니에 나와 생각에 잠긴다.  
멀리 펼쳐져 있는 항구와 바다가 보인다.

### 상도

(성근이 다가오자 소주병 건내며) ...어렸을 때 내는 항상  
바다가 여성이라고 생각했거덩. 죽은 우리 음마 품같이  
넓은...그란데 크갈수록...세상이 꼭 저 바다맹쿠로 깊은 늪  
인기라...

### 성근

(빈정) 행님, 개똥철학 그만 하고 청소 좀 같이 하죠.

### 상도

씨바... (성근의 머릴 톡 치곤 소주병을 뺏으며) 니 거 아  
나? 약장사가 합법인 나라도 있다카는 거?

### 성근

칫- 어 데예? 내가 대통령이라도 안 해주지...합법...

### 상도

있다 새꺄! 신문에서 봤다...한 뜻 잡아서...세금내고 장사  
하는 데로 가는 기야. 짜바리들 타치 없는 데로... (성근이  
가 버리고) 멀리... (검은 바다를 보며) 징글징글한 바다  
를 뜨는 기야...

## 18. 실내. 침실 - 밤

도경장, 최형사 부인, 다섯 살배기 아이와 나란히 누워 자고 있다.  
잠결에 뒤척이는 도경장 얼굴 위로 들려오는...스으츠치치...기분나쁜 소리.  
게슴츠레 눈뜨는 도경장, 옆을 돌아보다 악-! 뭔가에 놀라 벌떡 일어난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곤히 잠들어 있는 부인과 아이...악몽을 꾼 듯.  
순간, 엄습하는 편두통에 왼 편 머리를 움켜쥐는 도경장.  
방구석에 봉지를 당겨 쏟자 200알 들이 <사리돈> 꽉이 나온다.  
두 알을 삼키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도경장...끄응...고통스러운 숨을  
뱉으며 주먹으로 왼 편 머리를 콩콩- 때린다.

## 19. 실외. 용두산공원 - 낮

부산 시내 한 가운데 위치한 용두산공원 전경이 보인다.  
공원으로 몰려나온 시민들이 한가로이 해가쨍한 날씨를 만끽하고 있다.  
주차장과 산책로, 타워 주변에 노점상으로 위장한 김형사와 형사들.  
승려복을 입은 도경장의 시점으로 저만치에 서 있는 상도가 보인다.  
상도 타워 옆 매점 앞에 서서 초조한 얼굴로 담뱃불을 붙인다.  
창준의 차가 주차장에 진입하자 상도가 도경장에게 신호를 하곤 움직인다.  
형사들이 탄 봉고차와 승용차가 창준의 차를 에워싸며 서서히 접근한다.  
창준에게 다가가던 상도, 조수석에 지영을 발견하곤 ‘씨바...’ 중얼거린다.  
이 때 서행하고 있는 봉고차 뒤에서 하얀 프린스가 빵- 클락손을 울린다.  
봉고차의 형사 다급하게 프린스에게 먼저 가라고 창 밖으로 손짓을 한다.  
프린스 안에 있는 건달같은 녀석이 쌍욕을 하며 클락손을 길-게 울린다.  
클락손 소리에 시민들 시선이 이 쪽으로 쏠리고 도경장 다급해진다.  
창준이 백미러로 소리 나는 곳을 헐끗 보곤 걸어오는 상도를 유심히 본다.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상도의 몸짓이 부자연스럽다.  
창준의 예리한 눈빛이 순간 번뜩이며 좌우측, 후미의 주차상황을 체크하더니 시민들 틈에 섞여 다가오는 남자들이 형사임을 알아챈다.  
번개같이 악셀을 밟으며 앞으로 전진하는 창준, 앞으로 끼어드는 차에 막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운전석 아래에서 종이봉투를 꺼내 창 밖으로 던지려는 순간, 도경장의 손이 쪽- 안으로 들어와 창준의 손을 잡는다.

### 도경장

(히죽 웃으며) 이 머꼬, 내 선물이가?!

하지만 창준의 다른 손엔 이미 커다란 군용대검이 쥐어져 있는 게 보인다.  
형사들이 창준의 차로 우르르 달려가는 걸 보는 상도, 나몰라라하고 튀려는 순간 여자의 비명 소리에 뒤를 돌아 본다.  
차에서 빠져나온 창준이 지영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뒷걸음질 치고 있다.  
형사들, 엉거주춤한 폼으로 창준을 에워싸기만 할 뿐 접근하지 못 한다.  
상도, ‘이게 아인데’ 하며 발걸음을 돌려 상황이 벌어지는 곳으로 향한다.

### 도경장

(피가 흐르는 팔뚝을 손수건으로 감으며) 아주 마즈막 발  
악을 하는구만! 쥐바!

옆에 형사의 죽도를 뗷어들고 붕붕- 휘두르며 창준에게 다가가는 도경장.  
창준, 위협적으로 칼을 휘두르며 지영을 방패삼는다.

### 도경장

(기세에 지지 않고) 야, 방금 그 가수나 집에서 2키로 찾  
아냈거든? 가는...그마이 이용해 둑었으믄 됐다. 누가 뒤지  
든 마 니캉 내캉 둘이 해결하자!

도경장의 말에 분노가 끓는 창준, 공간을 확보하려고 지영을 형사들에게  
밀치는 순간, 지영의 목언저리를 칼로 긋는다.  
악- 지영이 비명을 지르고 피가 튀지만 창준 아랑곳 없이 등 뒤의 경사  
진 숲으로 몸을 던진다.

### 도경장

어후- 저 미친 새끼!

형사들과 도경장 숲 속으로 뛰쳐 들어간다.  
아스팔트 바닥에 엎어져 있는 지영을 아줌마 하나가 부축해 준다.  
깊게 패인 목언저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자 아줌마가 웃가지로 막는다.  
시민들 속에 숨어 상황을 보던 상도, 처참한 얼굴로 흐느끼는 지영을 바라  
보다가 숲 너머에서 들려오는 격한 소리에 정신을 차린다.  
타이어의 강한 파열음과 함께 사람들이 다급히 소리치는 게 들려온다.

## 20. 실내외. 차 안 - 밤

급하게 운전하는 상도.

숲을 따라 이어진 도로를 내려가는데 트럭 하나가 갓길에 쳐박혀 있고 그  
앞에 보이는 창준의 처참히 뚫개진 시신이 신문지에 덮여 있다.

앰뷸런스가 달려오고 교통통제를 하는 형사들 사이에 일그러진 얼굴의 도경장 모습 보인다.

사고현장을 빠져나오는 상도, 곁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상황에 머리가 아프다.

## 21. 몽타쥬-1.

99년 1월 00일자. 부산일보.

<마약조직 행동대장 이창준씨 경찰 검거과정에서 사망>

<경찰의 과잉 작전에 대한 검찰의 내사 착수>

<수양서 강력계 주임 및 형사 징계 조치>

큰 제목의 신문기사 아래 구석에 조그맣게 실린 기사.

<이창준씨 사망 현장에서 도주한 하부 조직원 구속>

신문기사에 오버랩되는 상도 모습, 저항하다 수 없이 얹어맞는 모습.

수갑을 차고 검찰 수사관들의 차를 타는 상도의 울분에 찬 얼굴...

## 22. 몽타쥬-2.

- 달력의 날짜가 99년 1월에서 99년 9월까지 흐른다.

- 99년 9월 00일자. 부산일보.

<부산 검찰청 신회장파, 이항순파, 최재도파...3대조직 소탕!>

- 바다에선 경비정이 밀수선박을 수색하고,

- 육지에선 막강한 화력으로 무장한 검찰이 제조공장들을 탈환한다.

- 줄줄이 잡혀가는 조직원들...정리된 현장에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지휘자가 있다.

- 대머리에 너구리같은 인상의 고검장! 품을 엄청 잡는다.

등에 부산검찰청 마약파라고 쓰인 잠바를 입고 있다.

- 표창받는 고검장의 득의양양한 모습에서 사진 찰칵하며 신문기사로 바뀐다.

23. 실내. 거실 - 밤

고계장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보다가 팍- 구겨버리는 도경장.

도경장

(신문 팍팍- 찢으며) 씨발 영웅났네...영웅났어!

파자마 차림으로 벌러덩 드려 눕는 도경장.

방바닥 여기저기에 널린 빈 맥주병, 오징어 쪼가리들.

맥주캔 하나를 원샷하며 창 밖의 햇살을 보는데 갑자기 눈주위에 터지는  
불빛. 평평~

24. 실내. 침실 - 밤

눈가에 평평...터지는 광휘가 도경장 시점으로 보인다.

눈을 깜박이는 도경장, 고개 들어 아래 보면 부인이 열심히 애무를 한다.

부인이 오케이! 신호를 보내곤 쟁싸게 엉덩이를 들이대자 도경장, 쑥- 삽  
입을 하는데 침대맡에 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우뚝- 동작을 멈추곤 아래를 보며.

도경장

(뻘쭘) ...갔다...

부인, 흉- 양탈 난 소리를 내며 누워버리고 도경장 사진을 명히니 본다.

액자 안에 죽은 최형사와 부인, 아이가 나란히 찢은 사진이 보인다.

장면전환.

팔베개하고 누운 도경장 가슴에 손얹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부인.

부인

(액자 가리키며) 인자 쯤 치우자... (도경장 반응 없자) ...

무신 문제있나?

### 도경장

문제가 하나 있제...(생각하다) 고등학교 윤리시간에...왜  
소크라테스라고 글마가 했던말 있거덩. 니 꼬라지를 알라.  
그때는 씨발 무신 저런 죽같은 걸 명언이라꼬 교과서에  
실어놨나 캤다. 그런데 지금 와가 생각해보믄 그기 틀림  
없는 명언인기라! 왜냐? 내가 지금 요모양 요꼴로 사는  
기 다 내 꼬라지를 몰라가 그러는 기거든....

### 부인

(통명) 이 꼬라지에서 벗어날라카믄...어데 빠 하나 살 돈  
이나 좀 해도! 인자 복직이제?

### 도경장

복직... (후- 한숨을 쉬곤 중얼) 경찰 때리치까...

### 부인

때리치우믄. 며 할 줄 아는 거 있나?

### 도경장

먼가를 해볼라캐도 할 방법은 없고...또 안할라캐도 안할  
방법도 없고...니미...죽은 행님따라 경찰 돼갖고... (부인을  
들여다 보며) 도대체 님은 머꼬?

부인, 도경장 얼굴을 확- 밀어 버리곤 돌아 눕는다.

시간경과.

헉- 악몽에서 깨는 도경장, 식은 땀을 닦는다.

잠자는 부인과 아이를 보다 액자 안의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 본다.

### 도경장

(중얼) 저걸 치우믄...내가 와 여게 있는지...것 마저 알 수  
없다...

중얼거리다 두통에 눈살을 찌뿌리며 머리를 콩콩- 때린다.

## 25. 실내. 수양서 - 낮

책상 서랍 안에 보이는 사리돈 꽈, 알약들...  
도경장, 참으로 한심한 자세로 입을 헤- 벌리고 코를 골며 잔다.

### 주임

(지나가다 도경장 한심히 보며) 복직한 지 며칠 됐다고...  
야 밤에 머하노 도대체...

쿵- 주임이 문을 세게 닫고 나가자 벌떡 깨는 도경장.  
게슴츠레한 눈으로 옆을 보면 김형사가 한쪽 구석에서 닳고 닳은 얼굴의  
50대 아줌마 하나를 앉혀놓고 심문하고 있다.  
김형사 막무가내 아줌마의 떼쓰기에 찔찔 맨다.

### 김형사

단순 운반은...말만 잘하믄 벌금이라...빨랑...아이씨 배고파,  
어따 감췄는데?

### 아줌마

(억울하다) 문디 자슥들아! 쌩사람을 테리다놓고 햅박이  
고 햅박이. 낸 모른다!

### 도경장

(잠시 보다 의자를 끌어 아줌마 앞에 앉으며) 비키바라.

아무 말도 없이 아줌마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실실 웃는 도경장.  
아줌마의 치마단을 잡고 감을 감상하듯 만져보며.

### 도경장

치마 색깔 참 곱네. 중국에서 사온기요?

### 아줌마

(당황해서 도경장의 손 쳐내며) 와-- 와 이라능교.

그러나 아줌마의 그런 반응에도 아랑곳않고 치맛자락을 슬슬 쓰다듬는, 그  
러다 아줌마의 치마속으로 손 쭉 집어 넣으며 치마를 확 들추는 도경장.  
아줌마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을 치지만 도경장 막무가내다.

장면전환.

책상 위에 윤기가 쫄쫄 흐르는 콘돔.  
콘돔 안에는 하얀가루가 땅땡하게 채워져 있다.  
옷을 추스르며 얼굴이 별개진 아줌마 주눅이 든 표정으로 앉아있다.  
김형사 증거를 쟁기며 아줌마 데리고 나가려 하면.

### 아줌마

(불쌍한 표정으로) 도경장아...함만 봐주라...다 먹고 살라  
꼬 하는짓 아이라예 (도경장의 손 덥썩 잡으며) 이번 한  
번만 봐주믄 내 평생 은혜갚으며 살끼요..

### 도경장

(아줌마 손 뿌리치며) 이 아지매가 징그럽게 와이라노.

### 아줌마

(뻔뻔하게) 에잉~ 이미 볼거 못볼거 다른 사인데 징그럽  
긴 머가 징그럽다꼬....

### 도경장

(외면하며) 김행사...빨랑 뎔꾸가-

### 아줌마

(도경장 불잡고 들어지며) 중국에서 쉬쉬하는 소리가 있  
는데...한번만 바준다꼬 약속하면 내 알려줄건데.....

### 도경장

(김형사 보고) 야-!

김형사가 강제로 아줌마를 일으켜 세울려고 하면 다급해진 아줌마.

아줌마

내가 중국에서 누구 소식을 듣구 왔는데 안 궁금하나?

장철 말이다.. 장철!

도경장

(갑자기 표정 확 돌변하며) 머-어?

## 26. 실외. 교도소 - 아침

구치소의 철문이 열리고 후줄근해진 물골의 상도가 나온다.

햇빛에 부셔 눈을 가리는데 상도의 차 깍- 서며 성근이 내린다.

쪼르르 달려와 챙싸게 담배꺼내 상도에게 주고 불을 붙여주는 성근.

상도 담배연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후- 하고 연기 내뿜으면 무언가 비닐봉지에서 부시럭거리며 꺼내 상도에게 주는 성근. 보면 따끈한 생두부다.

성근

한입 드시지 예

상도

(확- 밀치며) 치아라!!

성근이 뻘쭘해하자...쫌 미안하다. 손을 뻗어 손톱만큼 뜯어먹는 상도.

상도

(성근 얼굴을 보며 작게 웃더니) 고맙다.

성근도 씩 따라 웃고 어색하지만 남자 두 놈이 엉거주춤 포옹을 한다.

상도

(포옹한 채) 을마 줄노 변호사새끼?

성근

(포옹한 채) 선임비 오백, 성공사례비 이천예...작업실 방  
뺏심미다.

### 상도

뭐? (화- 성근 몸을 밀치곤 한모금 깊게 빨더니) 씨바...  
일분 안에 상황 요약해봐.

### 성근

(한숨 푹-) 인자 이바닥에서 장사해묵기도 쪼매 힘들지  
싶심미더. 물이 돌긴 도는데...구경을 할 수가 없어예. 뉴  
페이쓰가 있는데예...

## 27. 실외. 산장호텔 주차장 - 저녁 ~ 밤

부산 근교에 위치한 고급 러브호텔.  
정구가 뜰마니 둘과 함께 나타난다.  
고급 승용차에 돈이 많아 보이는 남자를 호텔로 들여보내는 정구.  
남자가 들어간 후, 차 뒷 좌석에 앉았던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정구.  
순간, 상도의 눈알이 커진다.  
불안스레 정구의 손에 이끌리는 여자의 얼굴이 낯이 익다...지영이다!  
정구가 들어가 버리자 상도와 성근, 각자 하나씩 담배를 문다.

### 성근

깡패질하던 놈인데예...어 데 단단한 뺨이 있지 싶으예...

### 상도

(푹- 한숨쉬더니) ...따라는? 은제부터?

### 성근

한...두어 달 전에 절마가 텔구 나타나네예...

### 상도

(생각하며) ...브아피덜한테 염산 하나씩 붙이주는기야...기

집장사까지... (담배를 던지며) 씨발럼!

상도, 열이 받는 듯 담배를 지근지근 밟아 끈다.

28. 실외. 포장마차 - 밤

상도와 성근, 후루룩- 우동을 먹는데 정구의 뜰마니 둘이 막 들어온다.

성근, 뜰마니들과 눈이 마주치더니 별떡 일어나 도망가고,

뜰마니들 '야- 백반! 일루와 새꺄!' 소리치며 돌진해온다.

상도, 영문도 모른 채 뜰마니 하나에게 멱살을 잡혔다가 가까스로 정강이  
를 걷어차곤 포장마차를 빠져나온다.

29. 실외. 수양 유흥가 뒷 골목 - 밤

어두운 유흥가 뒷 골목.

상도, 열이 받아 씩씩대고 성근, 풀이 확- 죽어 벽보고 서 있다.

상도

...씨발 내 쭉풀리서...쪽풀...(성근 노려보다) 그라서!

성근

...백반에 밀가루 쫌 섞어서...그래 팔았습...(쭈뼛쭈뼛) 행님

도 안 계시고...그냥...아르바이트루...

확- 상도 주먹이 올라가자 성근, 저리 도망가고...더 가지도 오지도 못 하  
고...상도, 푸- 담배연기 뿐으며 생각하지만 답답한 상황에 한숨만 나온다.

30. 실내. 수양서 - 아침

도경장, 의욕에 찬 얼굴로 과거 수사파일을 넘지는 등 분주히 움직인다.

복도를 나서다 주임과 마주치자 힘차게 경례를 하곤 지나간다.

김형사와 마주 앉아 골똘히 생각에 잠긴 도경장.

### 김형사

사방에 전화 느畋는데 예... 아직 장철이 봤다는 놈은 없심  
미다. 거 정신 나간 아즈메 말에 너무 과민반응하시는 거  
아입니까?

### 도경장

(초조하다) 이랄 때는 바닥부터 쓸어봐야지...(생각에 잠기며)... 뽕쟁이 저그들끼리 먼저 아는 정보가 있을건데...

## 31. 실내. 빠찡꼬 오락실 - 낮 ~ 저녁

포근한 봄날 낮의 한산한 오락실.

예전의 차림새와 달리 청바지와 가벼운 면티를 입은 상도... 영락없이 별 볼일 없는 백수의 모습이다.

상도, 슬리퍼 신은 발을 참 재수 털리게 떨며 심각허니 버튼을 누른다.  
그런 상도를 힐끔 쳐다 보는 옆 자리에 성근.

### 장면전환.

날이 어두워지고 북적대는 오락실 밖에 네온사인 불빛이 환하게 들어온다.  
상도 아까 그 자세로 바나나우유에 스트로를 꽂고 뾰그르르 거품 불며 계속 버튼 누른다. 얼굴은 골똘히 생각에 잠기 듯.

### 성근

(지겨워 하품하다) ... 행님... 그 새끼가 읊어지야 머 물주는 놈 얼굴 구경이라도 하지 예...

### 상도

(여전히 생각에 잠겨) 그렇제...

### 성근

그...도경장이라도 함 만나보...

### 상도

(버럭- 화내며) 새꺄! 빵에서 읽은 책에...이런 말이 있다.  
타인에 맴은 깊은 숲 속과 같다...세상에 믿을 새끼 하나  
없다, 이기야! 그 중에서도 짭쎄! 그것들이 일등이라!

### 성근

(덩달아 버럭-) 하모 우짜게예?! 행님들 다 줄줄이 학교  
가고! 인자 아무런 빼도 없다 아입미꺼! 하루 청일 여 앓  
아스 고민한 결론이 머냐고요?!

상도, 대답하려니 할말이 없다.

성근 무슨 대답이 나올까 궁금한 표정.

### 상도

우쭐꺼나믄!...(씨발 우짜지? 하는데 전화 울리자 반갑다)  
아- 잠시만~ 여보세요~

### 목소리

방. 갑. 다-! 상도야!

도경장 목소리에 잠시 놀라지만 곧 인상을 꽉- 구기는 상도.

### 상도

씨발 이거 이상도 전화 아이라! (소리지르고 끊는다)

### 목소리

이상도 전화가 맞는데 아이긴 머가 아이고!

옆에서 직접 들리는 소리에 보면 도경장 옆에서 핸드폰 들고 서 있다.  
도경장을 보고 금방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상도의 눈빛.

### 도경장

(얼싸 안을 듯이 팔을 펴고 걸어 오며) 우리 상도 읊매나

고생했노~

상도 별떡 일어나 도경장을 마주보고 뚜벅뚜벅 걸어간다.  
두사람 거의 얼싸안을듯 가까워지면 주먹을 날릴 듯 자세를 취하는 상도.

### 도경장

와? 한 대 치고 싶나? 치라.

도경장 표정은 여전히 웃는 얼굴.  
노려보던 상도가 기세에 눌려 손을 내리자 흑- 상도를 끌어안는 도경장.  
상도, 별레를 털어내 듯 도경장을 밀쳐 버린다.

## 32. 실내. 룸 - 밤

도경장, 술을 잔에 따라 상도에게 건네주면 상도 도경장을 똑바로 노려보다가, 술잔 빼앗아 흑- 바닥에 버린다.  
그러나 도경장 또다시 술따라 상도에게 잔 권하며.

### 도경장

구속건은 미안하게 됐다. 검찰이 끼드는 바람에...내도 정  
직 묵혔다 아이가...팔 빠진 데이...

상도를 향해 술잔 들고 뻗은 팔 미동도 하지 않는 도경장.  
노려보는 상도...시간 계속 흐르면.

### 상도

에이 씨발!!

도경장 손에서 흑하고 술잔을 빼앗아 입안에 털어 넣는 상도.  
또 다시 잔에 술채워 상도에게 따라주고....

시간 경과.

얼큰하게 취해 있는 두사람.

### 도경장

나와바리 다 증발했는데...우예 살끼고...

### 상도

(통명) 갱찰이 무신 범법자 걱정을 다 합미꺼...

### 도경장

(진지하게) 삼대조직이 거덜났는데 어데선가 물이 흘러나온다칸다. 한 마디로 질서가 없단 얘기제. 질서가 없을 땐 고마 먼저 묵는 놈이 장땡 아이가? 이 권력의 공백기에... 니...나와바리 회수해가...니...응?

### 상도

...뭔 얘길 하는 기고? 내 관심 없으요. 손 씻었습미더!

### 도경장

전번엔 일이 꼬이가 그래됐지만 그 때 니가 바라던 기 이런 판국 아이었나? ... (귀가 솔깃하지만 티 안내는 상도) (도경장, 훨씬 진지해진 어투로) 내가 원하는 기는 오직 하나야. 지금 물을 뿌리는 놈...글마를 잡는 거!

담배를 푸- 내뿜는 상도, 점점 머리가 돌아가고 점점 태도가 거만하게 바뀌면서.

### 상도

(한 잔 털어 넣더니 거들먹) 하이고~ 상~선은 콧빼기도 안 보이고 우쭐긴데~ 갱찰이 나서바야 다 숨어뿔테고... 장사꾼은 장사로 접근해야 미끼를 물제... (도경장 위아래로 흘기며) 에휴~ 머 비지니쓰를 해봤으야 알제!

### 도경장

(비굴한 웃음이 흐르며) ...그 동안에 니 멀 해묵든...최선 을 다 해서...뒤봐주께!

상도

(딜~ 하듯) 그란데...내 손 볼 놈이 하나 있는데...거 뒷처  
리가 필요한데...

도경장

(썬그拉斯 벗으며 눈을 빛내며) 하모? 우리...하는 기제?!

상도, 대답 않고 다시 쇼파에 폭- 눌러 앉으며 거드름 피우다 단숨에 원샷  
한다.

취기가 마구 오르고 도경장을 힐끗보는데 갑자기 열이 받는다.

상도

(가까이 앉으며 대뜸) 아까 그 말...아직 유효한가요?

도경장

...?

상도

한대 치라...(붕- 주먹을 날리며)...그랬제!

도경장의 죽통을 날리는데...느낌이 가볍다. 허공을 가른 상도의 주먹.  
도경장 이미 피했다. 엇...하는 순간 상도를 잡아 주먹을 날리는 도경장.  
발라당 나가떨어지는 상도, 벌떡 일어나는데 아까와 달리 술기운에 용기백  
배하다.

상도

(주먹 휘두르며) 깜빡에서 팔개월...씨바 그 동안에 내 손  
실이 천문학적이다!

난장판이 되는 실내.

혼신을 다 해 주먹을 휘두르는 상도.

도경장, 몇 대 맞더니 약이 올라 반격을 한다.

미간을 찡그리고 두들겨 패는 도경장과 무수히 맞아가면서도 술기운에 편  
치를 날리는 상도..두 남자의 얼굴이 교차로 보이며 둘의 나레이션 흐른다.

### 도경장

(보이스 오버) (몇 대 맞으며) 뽕쟁이한테 맞으믄서 머리 속이 점점 맑아졌다. (때리기 시작하며) ...내 우예 경찰이 됐는지...내 와 넘에 마누라 따끼리로 살고 있는지...그 이유를 알 수 있웠다. 진작에 글마를 잡았으야 했다. 진작에 끝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가라!

### 상도

(보이스 오버) (몇 대 겨우 때리고 열나게 맞으며) 세상은 늙이다...누군가는 반드시 악어가 되고 누군가는 반드시 악어새가 된다. 은젠가는 내도 악어가 된다. 늙을 건너고 또 건너믄...은젠가는 내가 악.어. 가 된다

### 33. 실내. 호텔 복도 - 밤

상도와 성근, 구석 방으로 다가가 노크를 한다.  
남자가 문을 열자 합동으로 남자를 폐대기치는 들.  
상도가 침실 문을 열자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고통에 차 있는 지영이 고개를 듈다.  
형광등 아래 명확히 나타나는...병자처럼 창백한 얼굴...

### 34. 실외. 부둣가 - 밤

인적이 드문 외진 부둣가.  
긱- 상도의 차가 급정거하며 선다.  
상도와 성근, 차에서 내려 옥신각신한다.

### 성근

...버리고 가요! 장사판 깼으믄 됐지... 참내...(상도 보다가)  
...행님! 종말 좋아했십미꺼?

상도

(짜증) 그런 거 아이라!

성근

(투덜) 맹품은...순전히 짹퉁 걸레구마...

처참히 망가진 지영을 바라보는 상도, 생각하다 뭔가 결심하는 얼굴.

35. 실외. 초등학교 앞 - 아침

초등학교 앞 작은 횡단보도.

잘 다려 입은 군복을 입은 삼촌, 횡단보도 한 가운데서 교통정리한다.

아이들을 우르르 건너보내고 호루라기를 불다가 동작을 멈춘다.

저만치 섰던 상도, 눈이 마주치자 통명스레 담배를 텅겨버리며 중얼.

상도

거 한다꼬 판사가 잘 바주나 씨바...

36. 실내. 삼촌 집 방 안 - 아침

잠이 든 지영의 팔을 걷는 상도와 그 옆에 삼촌, 놀라서 눈이 커진다.

비쩍 마른 팔뚝에 수 없이 많은 주사자국...거멓게 죽은 혈관들. 발가락의 혈관들도...

이 모습 위에 삼촌 목소리 들려온다.

삼촌

(보이스 오버) 쯧쯧...족히 두 달은 약만 먹고 살았데이...

여러 놈이 돌리가며 약을 췌을끼다...

37. 실외. 영도 달동네 삼촌집 앞 마당 - 아침

언덕 꼭대기에 자리 잡은 슬레이트 지붕의 방 두 칸, 판자집.  
멀리 항구와 바다가 보이는 마당에 앉은 상도와 삼촌, 둘이 나란히 앉은  
폼이 어색하다.

### 삼촌

(중얼)몹쓸 놈들...아아한테 저런 짓을 했노...(조심스레)...  
저 아랑 가깝나? 웬만하믄...빨랑 정신병원 넣어뿌라.

### 상도

(신경질적으로) 그랄라믄 머한다꼬 이리로 데리왔을끼고?  
...(조금 누그러져서) 좀 맡아도고.

### 삼촌

뭐라꼬? 조카란 놈이 코빼기도 안 보이다 불쑥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하이고...치아라!

### 상도

(다시 신경질) 정신 차릴때까지만 좀 맡아도! 그 담에 어  
데 갖다 버리든 맘대로 하고!

### 삼촌

하루이틀에 끝날 일도 아니고...임마! 내가 의사가?

### 상도

의사는 몬 하지. 정신병자 취급에 신고 밖에 더 하겠노!

### 삼촌

(꽥! 화낸다) 빨랑 덜꾸 가라, 내가 신고해쁠기 전에!

상도, 눈꼬리를 올리고 노려보다 핸드폰 쑥 내밀고  
삼촌, 상도를 쳐다보다가 풁- 한숨을 쉰다.

38. 실내. 수양서 강당 - 낮

형사들 수십명과 경찰간부들 죽 앓아 있고  
강단에서 고검장이 채트를 넘기며 변화된 마약 시장에 대해 설명한다.  
급격히 들어든 마약사범 통계를 예로 들며 자화자찬하는 분위기다.  
순간, 고검장 말을 끊으며 강당에 울려퍼지는 소리.

목소리

질문 있십미더!

모두들 소리가 난 곳으로 시선이 쏠린다.  
구석에 앉은 도경장, 걸령한 톤으로 말한다.

도경장

쥐에 법칙이라꼬...들어봤십니까? 광에서 쥐새끼 한마리를  
봤다면 그건 적어도 100마리의 쥐새끼가 있다...이런 말입  
미다. 고마...검찰청 칠판에는 숫자가 쫄었는지 모르지만...  
길거리 가보소, 짹대기 찾아 삼만리하는 년놈들 바글바  
글~할까요....검찰은 눈까리가 어데 히프짝에 달렸는가베...

고검장 눈꼬리가 올라가고, 형사들 여기저기서 맞어~ 하거나 깔깔 웃는다.

고검장

(금방 냉정을 찾으며) 항간에 이런 말이 있지요? 경찰한  
테 마약 수사는 교도소 담타고 다니는 기다...그만큼 까다  
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검찰 마약과에 일임하고...  
강력계 형사님들, 조용히 민생치안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고검장의 경고적인 어조에 경찰 간부들 당황하고 썰렁해지는 분위기.  
도경장, 피식- 웃으며 고검장을 노려본다.

39. 실내. 방 안 - 아침

비지땀을 흘리며 자다가 눈을 뜨는 지영.  
고개를 들어보면 아침햇살을 받으며 바퀴벌레떼가 온 몸 위로 기어올라오고 있다.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대는데 상도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상도가 담배 한 개비를 주자 지영이 헉 낚아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불을 붙이고 연기를 내뿜는 지영, 한 자리에서 이리저리 돌다가.

### 지영

(중얼) 쿡쿡 쑤셔...아파...벌레...온 몸에 벌레가 꼬여!

갑자기 지영이 상의 앞을 헉- 펼친다. 맨가슴이 덜렁 드러난다.  
주저 앓아 치마를 찢다가 고통에 몸부림을 친다. 등이 활처럼 훤판다.  
이불을 뜯으며 흐느끼자 상도 다가가서 지영의 몸을 쓰다듬어준다.  
지영이 몸을 와들와들 떤다. 그러다 헉- 고개를 들고 소리지른다.

### 지영

(표독스럽게) 내한테 와 잘 해주는데! 한번 따먹고 싶나?  
(홱- 상도의 따귀를 갈기더니 치마를 더 올리며) 묵으라!

상도가 지영의 뺨을 때린다.

### 지영

세계! 더 세계!

상도, 있는 힘껏 지영의 뺨을 때린다.

### 지영

(엎드려 흐느낀다) 부탁합마다!...제발 한 대만 줘예...

삼촌이 그릇에 담긴 물을 허겁지겁 갖고 들어온다.

### 삼촌

소금물이다.

상도, 지영의 입을 벌리고 억지로 물을 쏟아분다.

40. 실내외. 방 안 + 마당 교차 - 밤

상도, 마당의 평상 위에 앉아 열린 문으로 지영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기를 오랜 시간이 지난 듯 상도의 발 아래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였다.

지영, 정신병자처럼 이불을 쓰고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

약물 후유증인 급격한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

지영

(목에 깊게 패인 흉터를 만지며 중얼) 오빠죽고 나서...

괴로워서...매일...쓰러질 때까지 술을 마셨거등...

지영의 얘기를 듣던 상도, 성큼성큼 마당을 가로질러 나간다.

41. 실내외. 길거리 + 인서트 - 밤

상도의 차 시내를 지나 뒷골목의 유흥가를 훑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노점상, 음식점, 빼끼들, 술집, 오락실, 나이트, 여관, 안마, 창녀촌...쾌락과 퇴폐의 욕망을 용암처럼 분출하는 대도시의 이미지 흐른다. 그 위에 지영 나레이션.

지영

(보이스 오버) 그 날도 많이 마셨는데....옆에서 누가...음료

수를 주길래...미에로화이바 한 병....그 날 밤, 내 기억이

맞다면....8시간 동안 그 짓을 한 거 같다...

인서트.

술 마시는 지영, 남자 손에 쥐어진 미에로화이바가 시야에 꽉 찬다.

화면 빠지면 정구의 야릇한 얼굴 보이다가 시야가 환각적으로 흐트러진다.

크로우즈-업 된 주사기 세 칸에 채워진 흰 가루, 6cc의 물이 첨가된다.

주사기에서 바늘을 빼내는 정구의 손.

지영의 질 안에 주사기 주동이를 꽂고 3cc의 마약을 쏘이니 3cc를 항문에 꽂고 쏈다.

부르르- 하체를 떠는 지영...몽롱한 상태에서 극치감을 느낀다.

고통인지 쾌락인지...지옥인지 천국인지 알 수 없는 얼굴...

### 지영

(보이스 오버) 그 담에는...주사기만 눈 앞에 아른거리고...

약기운이 떨어지면 또...떨어지면 또...하루는 벽에 걸린 십

자가를 보는데...십자가 끝에 바늘이 달려있드라...

상도의 차, 수영 유흥가 뽕네프 앞에 선다.

뽕네프 입구에서 기다리던 성근과 나란히 서는 상도.

### 상도

(입구보며 중얼) 다시 접수한다. 읊 나와바리...

상도가 걸어 들어가고 잔뜩 겁먹지만 입술을 앙다문 성근, 따라 들어간다.

## 42. 실내. 뽕네프 - 밤

정구, 염산 둘을 양 옆에 끼고 술마시고 있다.

정구를 향해 술그머니 다가가는 상도.

잠바 소매에서 대검이 쑥- 빠져나온다.

부들부들 떨면서도 꾹 대검을 움켜쥐는 손.

똘마니 하나가 상도를 발견하곤 일어나려다 대검 손잡이에 선제공격을 당하고 벌러덩 자빠진다.

무방비의 상대를 뒤에서 급습하는, 수단방법을 안 가리는...비열한 상도의 모습.

성근이 다른 똘마니를 깔아 뭉갠다.

정구, 맥주병을 깨고 휘두른다.

상도, 맥주병에 눈두덩을 긁혀 피가 흐른다.  
다시 날아오는 맥주병을 피하는 상도, 정구를 잡아 바닥에 엎어뜨리고 의자로, 유리잔으로, 안주접시로, 발로 짓뭉갠다.  
를도 매너도 없는 생존을 위한 다구빨 싸움이다.  
거의 실신 지경에 이른 정구의 몸이 번데기처럼 오므라든다.  
정구의 등에 올라타는 상도, 포효하는 짐승처럼 사람들을 향해

### 상도

이상도 구역에서 약파는 새끼, 어찌되나 잘 봐라!

상도, 눈을 질끈 감고 대검으로 정구의 아킬레스건을 힘껏 긋는다.  
퍽- 상도 얼굴에 피가 튼다. 아수라장...

### 43. 실외. 봉네프 앞 - 밤

앰뷸란스가 오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다.  
경찰차 하나가 오자 김형사가 신분증을 보이더니 보낸다.  
도경장, 본네트 위에 널부러져 앓아 주변을 둑어보다.

### 도경장

(고개 끄덕끄덕하다 히죽 웃으며) ...미끼? 새끼...잽싸해도  
잘~ 하겠다...

### 44. 몽타쥬

- 달력의 날짜가 99년 9월에서 10월로 흐른다.
- 마약퇴치 운동본부의 광고가 끝난 후 부산 MBC 뉴스 보도화면 흐른다.
- “마약 없는 부산” 추진위원회 발족을 알리는 플랭카드 아래 우르르 모인 각 단체 관계자들...그 사이에 고계장 모습.
- 대형 마트. 최형사 부인과 아이, 열심히 장을 보고 저 뒤에서 카트를 미는 도경장, 심드렁한 얼굴로 따라온다.

주변 환경과 따로 노는 도경장, 일거수일투족이 생뚱맞다.

- 삼촌, 주사기를 배에 꿕는다. 놀라서 보는 지영에게 “ 당뇨주사다~ ”.
- 방 안. 안색이 많이 좋아진 지영, 상도식구, 삼촌식구의 작은 사진 여러장이 끼워 있는 액자를 본다.

< 군복을 멋지게 차려 입은, 젊고 건장한 시절의 삼촌과 그 옆에 상도의 어린 모습...>

- 마당. 삼촌이 지영에게 출넘기를 준다. 몇 번 하다가 지치는 지영을 다그치며 삼촌이 말한다.

### 삼촌

부산갈매기가 와 부산을 몬 뜨노? 첫째, 항상 물들어오는  
항구가 있고 둘째, 물 있으믄 같이 갈 연인이 있고 셋째,  
맘묵으믄 언제던 할 수 있고 넷째, 정 안되믄 부산구치소  
에서 해결할 수 있다...그마이 위험천만한 도시라 이 말이  
다. 인자...니 맘에 달렸다. 끊을 수는 없어도...영원히 참을  
수는 있는기라.

- 지영, 혁혁대며 출넘기를 하다가 눈물이 핑- 둘고 삼촌이 도닥여준다.
- 상도, 대문 밖에서 다정히 앉은 삼촌, 지영을 보다가 어이가 없다.  
상도, ‘ ...가수나 앉히놓고 억수루 품잡네...’ 중얼대며 가버린다.

## 45. 실외. 골목길 - 밤

상도,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앞을 가로막는 엄청난 덩치 둘.

### 배형남

이상도?

상도 고개 까딱하자마자 날아오는 주먹과 소리 ‘ 끊어앉아 개새끼야! ’

## 46. 실외. 감천항 - 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바지선 위.  
상도, 꽁꽁 묶여 바닥에 던져져 있다.  
그 옆에 팔짱끼고 있는 덩치...좀 전에 본 배형남이다.  
그 옆에 덩치들 사이로 50대 초반의 남자...장철이 나타난다.  
고급스러운 금테 안경을 쓰고 견실한 사업가 인상이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형남과 똑같이 생긴 또 한명의 덩치가 서 있다.  
형남의 쌍둥이 동생 배영남이다.  
형남이 갑판 끝에 매달린 상도의 몸에 둔중한 쇳덩어리들을 매단다.  
상도, 살벌한 분위기에 잔뜩 겁을 먹는다.  
장철 상도에게로 걸어와 머리맡에 선다.

### 장철

(의외로 다정한 음성) 정구 빙신됐다던데...니 돈 쫌 있  
나? 설마 돈또 읊는 놈이 남에 사업을 그래 망치놓았을  
라꼬.....안글나?

### 상도

(겁나지만 이를 악물고)...먼저 손해를 본게 누군데 그립  
니까? 수양은 원래 내 구역입니다. 그동안 거서 해묵은  
커미션이나 내소...!

순간 형남의 주먹이 상도 눈두덩을 강타하고 심한 고통에 신음하는 상도.  
장철, 맹랑하다는 듯 상도를 보다가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에 형남이 쇳덩어리를 바다로 던지자  
퐁덩~ 물이 튀어오르며 쇠사슬이 두르르륵- 바다 속으로 끌려들어간다.  
상도, 악-소리가 날려는 걸 입술을 깨물어 꼭 참다가.

### 상도

(두려움을 이기려는 듯 악을 쓰며) 손해본건 누구한테 받  
아낼끼고!? 장사꾼 아인갑네!

장철의 신호에 형남이 쇠사슬을 잡아 도로 끌어 올린다.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상도의 얼굴.

### 장철

(씨익 웃으며) 지난 손해분에 대해서...성의를 보이라. 1주  
일 주마. 기한을 어기면 니도 정구꼴이다.

장철 돌아서서 한걸음 걷다가 멈춰서서.

### 장철

배짱 하나는 두둑해서 좋다. 그란데 담부터는 밑에도 좀  
신경쓰바.

밑을 보면 상도의 다리 덜덜덜 혼자 떨고 있다.

장철, 물러나며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상도를 보고 씩 웃는 형남, 쇳덩어리를 다시 바다에 던져버린다.

쇳덩어리가 풍덩- 바다에 빠지며 물이 튕긴다.

상도, 질끈 눈을 감고 난간을 꽉-붙잡는다.

한바탕 물거품이 일었던 소리가 가시는데...

그러나 아무런 끌림이 없다. 쇳덩어리, 이미 상도 몸에서 풀려 있었다.

낄낄 웃으며 멀어지는 장철 패거리들.

## 47. 실외. 영도다리 아래 대포집 화장실 앞 - 밤

김형사가 세관 발신 인이 찍힌 종이 한장을 도경장 눈 앞에 들이밀며.

### 김형사

수출입승인장인데요 학실함마다. 위조한 여권이름이 김태  
동이...하얼쁜 근처에서 김치공장 한다꼬...세관에는 이렇게  
신고돼가 있고 얼굴을 쯤 뜯어고쳤는지...그러서 그 동안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 같심이다.

### 도경장

씨마...야 그 아즈메 상주야겼다...

김형사

그란데 말이죠... 세관에 지 아는 행님이 귀띔을 해준건데...  
일마 캠찰하고 짹짜꿍이라카데예. 햱조공문도 오고...

도경장, 눈빛을 번뜩이며 인상이 구겨진다.

48. 실내외. 영도다리 아래 (접선 장소) 대포집 - 낮

낡은 다리 아래, 판자촌이 남아 있는 낡루한 바닷가 주변에 대포집들.  
지글지글 타고 있는 돼지껍데기 위로 쑥 사진 한장을 내미는 도경장.

상도

(사진 요리조리 살피다가) ...맞는 것도 같고...

도경장

(신이 나서) 맞아! 맞을꼬야!

상도가 보면 도경장, 치밀어오르는 기쁨을 억누르며 감추지만 티가 난다.

도경장

(원샷하곤) 크... 재료는 분명히 중국에서 넘어올테고... 판  
매사범이 아닌 제조로 놀라카믄 물중이 학~실해야제!. 공  
장하고 교수만 잡으면 그 담은 일사천리 아이겠나!

도경장, 신이 나서 자꾸 상도에게 원샷 권하고 상도 마지못해 마신다.

49. 실외. 영도다리 아래 - 밤

도경장, 상도 둘 다 취해서 바다를 향해 서서 오줌을 갈긴다.

상도

(혀가 풀려서) 사진에 글마...장철이 맞지요?

도경장

... (오줌발이 뚝 끊긴다)

상도

(멍든 눈두덩 만지며) 쐐는데...

도경장

체- 쐐바야 뽕쟁이제...니같은.

상도

벤쳐사업가라니깐 씨...

도경장

니 회전목마 알제? 빙글빙글~ 도는...그 회전목마를 타며  
는 끝날 때까지 못 내린다 아이가.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글마하고 내는 안죽도 같은 회전목마에 타고 있거덩. 빙  
글빙글~ 콩- 하고 끝날 때까지...

상도, 도경장의 이글이글 타는 눈빛을 보다가 후- 한숨을 쉬더니.

상도

씨바 고래쌈에 새우등 터지겠네...(중얼거리다) ...글마 잡  
고 더두 말구 일년만...협조! 꼭 약속 지키소. 꼬-옥...

도경장

걱정 불들어매고 잘~해자...인자 시작이다...

상도

(눈치 힐끗 보곤) 그리고 담주까지 삼천 해주야 할낀데...

도경장

(술 확 깨며) 머어? 무슨 삼천?

상도

빼도박도 몬하는 입장료 아이요, 글마 나와바리 드갈라믄.

도경장

(손 날라가며) 그런 말을 왜 지금해 씨발!

상도

(살짝 피하며) 그까짓 삼천이 문젠가?...안즉도 돌아가는  
데...(놀리듯 또 피하며) 회전목마~

도경장

(고민된다)...사암-천?!...

## 50. 실내. 침실 - 밤

도경장, 최형사 부인, 아이가 나란히 자고 있다.

게슴츠레 눈을 뜨는 도경장, 스으츠치치...이상한 소리가 나는 걸 느낀다.

서서히 커지는 기분나쁜 소리.

도경장, 또? 라는 얼굴로 미간을 찡그린다.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면 자신을 등지고 자는 여자가 보인다.

여자의 등을 톡톡 쳐서 깨우지만 반응이 없자 상체를 들며 여자를 바로  
누이는데...!

염산에 녹아 들어가고 있는 여자의 얼굴! 혁- 놀라며 여자의 얼굴을 넘어  
몸을 날리는 도경장, 그 순간 손에 잡히는 아이의 얼굴...그 작은 얼굴도  
거의 다 녹아 해골이 보인다.

‘으아아아악---’ 비명을 지르는 도경장.

장면전환.

여자와 아이 곤히 잠들어 있고 도경장 혼자 앓아 헐떡인다.

그 동안 도경장 악몽의 실체가 뭔지를 알수 있다.

구석의 봉지를 털어 <사리돈> 서너 알을 삼키는 도경장,

식은 땀을 닦아내며 부르르 온 몸을 떨다가 머리를 쿵쿵- 세게 두드린다.

## 51. 투약자 갈취 몽타쥬 - 낮 ~ 밤

-옥상 난간에 아슬하게 숨어 바들바들 떠는 룸싸롱 사장.

도경장, 건너편 옥상에서 위태하게 몸을 날려 사장을 잡는다.

-나이트 클럽의 가수, 도박 하우스, 골프 연습장, 대학교수의 연구실 등을 덮치는 도경장.

-호텔 사우나문을 뻥- 차고 들어오자 아줌마들 비명을 지른다.

용의자인 여자 몸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간다.

아줌마들한테 바가지와 물세례를 맞으며 쫓아가는 도경장의 핸드폰 울린다.

### 상도

(키득키득 웃는 목소리) 잘~ 되십미꺼~?

### 도경장

(물세례 맞으며) 바빠. 끊어 임마!

-위의 투약자들 앞에 주르르 놓여있는 오줌테스트바.

다들 꿀꺽 침을 삼키며 테스트바를 주시하는데 떠오르는 양성반응들.

-도경장과 김형사, 율상의 투약자들을 각자 구석으로 데려가며 열심히 협상...갈취가 시작한다.

-낮밤으로 미친 듯이 뛰는 도경장에 김형사도 녹초가 돼가는데...

-오락실에 앉아 빠찡꼬를 두드리는 상도, 유유자적이다.

## 52. 실외. 삼촌 집 - 저녁

상도, 차에서 내리는데 삼촌 집 옆이 와자지껄하다.

삼촌 집 바로 옆 판자집을 간이 샷시로 개조해 만든 곳.

삼촌이 확- 종이를 뜯자 <쉼터>라고 써여진 조악한 간판이 나타난다.

평생 막 산 티가 덕지덕지 붙은 노인들 우르르 모여 박수를 친다.

지영이 상도를 보곤 쪼르르 달려온다.

### 상도

(심드렁) 머꼬? 이게 중요한 일이가?

### 지영

하나 있는 조카가 이런 날 참석 쯤 하믄 안되나?

삼촌, 상도를 보곤 반갑지만 크게 내색 못하고 일장연설중이다.

### 삼촌

...평생 감옥소 들락거리다 오갈 데 없는 분들을 위한 복  
지시설...쉬임터~ 오픈입미더. 행님들! 시상에 입구는 있고  
출구는 없는기 머꼬? 시상에 가장 팽동한 기 머꼬? 아무  
리 잘 난 놈도 이길 하믄 갤국엔 다~ 빙신이 된다. 마구  
가 주는 약, 마아~약...

연설 이어지고 노인들 삼촌 말에 박자를 맞추듯 동시에 고개 끄덕끄덕.

### 상도

(쉼터 안을 황당히 보다가) 하이고~ 부산사는 뽕쟁이 할  
베들 여계 다 모인갑네...

### 장면전환.

등그렇게 앉아 있는 노인들의 박수를 받으며 마이크를 드는 지영.  
구식 가라오케 통에 테잎을 꽂자 조용필의 <잊기로 했네> 가 흐른다.  
지영이 노래를 시작하자 노인들, 아이들처럼 환호성을 지른다.  
안색이 좋고 옛날의 매력을 되찾은 지영 얼굴이 상도의 눈동자에 박힌다.  
노인들 노래가 이어지고 상도, 지영과 나란히 앉아 연거푸 돌아가는 막걸  
리 사발을 마신다.  
거나하게 취하는 삼촌, 모처럼 행복해 하는 모습이 상도의 눈에 들어온다.

### 53. 실내. 방 안 - 밤

달동네 아래 흰한 항구에서 우옹~ 뱃고동이 울린다.

쉼터에서 노인들의 악자지껄한 소리 들려온다.  
상도가 방문을 열다가 지영과 맞닥드린다.  
지영, 후끈한 입김을 내쉬며 야릇한 눈빛으로 상도를 바라본다.  
상도, 걸렁히 지영을 바라보다 와락 안다.  
기술도 순서도 없이 지영의 몸을 마구 파고 드는 상도.  
그러다 방 한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한다.  
중류수에 풀다 만 <러니멀>과 <에스정>이 보이고 그 옆에 주사기.

### 상도

씨발 감기약 갯구 지랄...

상도가 흑- 지영을 팽개치자 지영이 방구석에 힘 없이 쳐박힌다.

### 상도

(잠시 노려보다) ...야 이 가수나...정신 안 차리노...

### 지영

(자조적으로) 남자한테 이용당하고...친구들한테 작업당하  
고...거 괴로워가 또 하고...이 바닥 여자가 어데 가겠노?

### 상도

(안타깝다) 너는 옛날부터 땀 것들 맹쿠로 안 망개지고  
지 갈 길 잘 가는 거 같아가 쫌 달랐다! 너는...그...한 마  
디로...맹풀였다 아이가! 맹... (자기 한 말에 좀 쑥스럽다)  
(지영이 고개를 들어 상도를 본다) ...요즘 너 컨셉이 머  
꼬? 재충전 아이야?

### 지영

(주루륵 눈물이 흐른다) ...재충전...

### 상도

할베들을 바라! 니 20년 후 모습이라 생각하믄 후딱 정신  
이 안 드나?

지영

재충전...(중얼 한 번 더 따라하다 작게 웃더니 상도를 보  
곤) 함 다시 안아도...매너 있게.

상도, 미간을 찡그린 얼굴이 슬그머니 풀리며 지영을 보다가 확- 안는다.

지영

사실...니한테...억수루 고맙다. 억수루...

상도

(우쭐해서 팔에 힘들어가며) 아 됐으...됐으.

지영

삼촌한테도... (문득 벽에 걸린 삼촌과 상도의 사진을 보  
며) 그란데 사진 속에 저 군인이 중발 삼촌이 맞나?

상도

(금방 기분 깐다) 줄 잘 못 서가 웃 벗고...할 줄 아는 기  
없으이...범죄밥묵게 됐지...에이~ 그만. 내는 니보러 왔다...

상도, 지영과 눈이 마주치자 분위기 오르며 키스를 하려는데...

밖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더니 벌컥- 문열리며.

삼촌

(만취해서) 문디이 자슥아!...해늘이 두 쪽나도 핏줄은 못  
끊는...

삼촌, 술기운에 주절대다 방 안의 상황파악하고 목소리가 죽어들어간다.

동작그만 상태에서 그제서야 후다닥 일어나는 상도와 지영.

슬그머니 문 닫고 아웃하는 삼촌.

상도, 기분 잡쳐 우거지상을 하는데 마침 핸드폰 울린다.

상도

(신경질적으로) 머꼬?!

도경장

(목소리)다됐다, 새꺄!

54. 실외. 초량 텍사스 - 밤

화교와 러시아와 필리핀 선원, 미군, 매춘부 등이 우글대는 초량동 텍사스.

상도와 성근, 장철 일행이 클럽 안으로 들어가는 걸 차 안에서 지켜본다.

상도

러씨아 텍사쓰...여계가 깊은 산 속 웅달샘이가...졸졸 물이  
흘러나오는...

성근

(심각하게) 삼합회하고 칭구라던데...

상도

(역시 심각) 한국챔피온이 아이고 세계타이틀전이다. 니  
는 누가 더 셀거 같은데? 도경장하고 점마하고.

성근

(불안하게 다리 떨며) 쌀벌해 보이네예...

상도

법죄밥묵는 놈 치고, 경찰보다 센 놈 읊다. 쌈불이놓고 우  
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묵는 기제....(하다가 자신과 성근  
둘 다 덜덜 다리 떨고 있는 걸 보곤) 떨지 좀 마 새꺄!  
(생각하다) ...야, 니 지게꾼 할 놈, 뽀뽀한 놈 하나 구할  
수 있나?

성근

(솔깃해서) 중국 보내시게예?

상도

그래. 새로운 선을 함 뚫어바야되지 않겠나. 절마들 날라  
간다고 그 공백이 또 올매나 가겠노? 미리미리 준비해가  
찬쓰가 왔을때 한탕 치고 빠지야지!

### 55. 실내. 텍사스 클럽 내실

음침한 분위기의 내실.

상도, 돈다발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는다.

맞은 편에 장철, 테이블을 둘러싼 덩치들, 그 옆에 배씨 형제 보인다.

장철의 모습은 비즈니스맨 같으면서 동시에 근엄이 있다.

#### 장철

흠... 신회장 아랫 일을 했었다꼬... (상도를 보며 흡족한  
웃음, 돈을 집어 넣고) 니가 맘묵기에 따라... 이 도시가 니  
를 독살하게 내버려 둘 수도 있고, 니가 이 도시를 컵 속  
에 든 꿀물처럼 달게 마시 버릴 수도 있다.

#### 상도

(긴장하며) 수양은 지 손바닥 안에 있습미다. 정구가 하  
던 판에 두 배로 키워드리겠습니다!

#### 장철

판이 커진다고 내 룰이 달라지진 않아... 첫째, 소매가는 니  
맘대로 받아라. 둘째, 판매금의 30프로는 무조건! 하늘이  
갈라지고 해일이 닥친다케도... 갖고 오는기야. 이리로. 그  
라고 가져간 물값은 당연히 따로 계산해야겠제? 열심히  
띠바!

장철의 말을 듣는 상도의 얼굴에서 보이스 오버.

#### 상도

(보이스 오버)...도둑노모새끼...

## 56. 실외. 완월동 - 낮

집창촌에서 포주 서넛을 체포해 연행하는 형사들.

항의하며 달겨드는 아줌마들을 제지하고 달래는 주임, 진땀이 난다.

도경장이 결제판을 들고 쪼르르 주임 곁으로 다가온다.

### 주임

(경찰에게 아줌마 인계하며) 씨발~ 골치 아파...(도경장 보곤) 야! 니 요즘 먼 공작을 꾸미노? 것만 빨리 말해바라.

### 도경장

(주임을 한 구석으로 이끌며) 이거이...대업마다. 아주 큰 놈. 점수관리 힘든 형사계에 고마 기회가 자주 옵니까?  
(의욕 넘친다) 잘 되믄...공과가 지 혼자 껌미까 주임님?!

### 주임

(생각하다) ...다 좋은데... (좀 걱정된다는 듯)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고거 넘지 마라...응?

## 57. 신문기사 + 상도 판매 재개+ 장철조직 소개 몽타쥬

-달력의 날짜 99년 10월에서 11월, 12월로 바뀐다.

-99년 12월 00일자. 부산일보.

< IMF 후 마약값 폭락! >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 마약 조직 다시 고개 드는가... >

신문기사에서 화면 빠지면 복잡한 지하철 역.

신문지로 쌉 물건을 코인락커에 넣고 사라지는 조직원의 모습.

-잠시후 손가락으로 열쇠를 빙빙돌리며 걸어오는 짹- 빼입은 상도.

-주위를 살펴보고 코인락커 열어 물건을 가방에 담은 후 휘파람 휘휘~ 불며 사라진다.

-수양 유흥가. 상도와 성근, 씬 4에서처럼 고객들에게 판매를 재개한다.

- 썬 17의 호화 오피스텔에 다시 입성하는 상도와 성근.
- 내실에서 장철에게 판매금을 상납하는 상도.
- 배영남이 액수를 확인하고 그 옆에 흡족한 장철의 얼굴 위에 나레이션.

### 상도

(보이스 오버) 중국에서 싸게 원료를 밀수해가 파격적으  
로 가격을 따운! 박리다매로 부산 전역은 물론이고 서울  
에도 뿐리는 전국구! 그리고 자기 물을 팔아묵는 데 끝나  
는 기 아이라 하선의 판매금에도 손을 대가 쳐취해묵는...  
아주 악질 문디이새끼!

- 똘만이들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배영남의 빈틈없는 모습.
- 항상 장철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따라 붙는다.

### 상도

(보이스 오버) 배영남....장철이 가장 신뢰하는 실질적인  
조직의 이인자. 경제 어려워가 먹구 살 기 없으니까 조직  
에서 나와 물장사에 손을 댄, 조폭 떨거지!

- 호텔 방 안에서 과잉투약으로 초죽음이 된 여자 둘이 실려나간다.
- 배형남 약에 취해 행패부리며 호텔직원들을 두들겨 폐고 기물을 부순다.

### 상도

(보이스 오버) 배형남이...배영남의 쌩뚱이 형. 심한 중독  
자. 허구현날 말썽을 일으키가 장철의 신임을 얻지 못하  
는 골치 덩어리!

- 내실. 장철이 약에 덜 깨 형클어져 있는 형남에게 호통을 친다.
- 형남, 불만에 찬 얼굴로 내실 문을 벌컥 열고 나오다가 근처를 기웃 거리  
던 상도와 마주친다. 꾸벅- 인사하고 가버리는 상도.
- 뒤따라 나오던 영남이 상도의 뒷모습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본다.

## 상도

(보이스 오버) 중국에서 건너온 재료를 교수한테 넘기고  
완제품을 다시 받아오는 거 같은데...그 때만은 항상 장철  
과 영남이가 동행. 그러니까...제조공장을 아는 놈은 장철  
하고 배영남이 뿐!

- 검은색 세단을 운전하는 영남. 뒷 좌석엔 중절모에 금테 안경을 쓴 장철.
- 세단을 멀리서 미행하던 상도의 차, 곧 도경장의 차와 조우한다.  
바톤터치하며 상도에게 ‘단속대상 지역’을 귀띔해주는 도경장.  
손가락으로 브이를 그리며 사라지는 상도를 못마땅히 보는 도경장.
- 시내를 주행하던 세단 갑자기 차를 확 꺾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다.
- 주차장 안. 장철과 영남이 다른 차로 갈아타고 빠르게 빠져나간다.
- 곧 장철처럼 차려입은 남자가 세단에 타고 영남과 바톤터치한 형남이 운전을 한다.
- 주차장에서 세단이 나오고....쌍둥이 형제를 이용한 눈속임을 눈치채지 못하고 쫓다가 허탕을 치는 도경장.

## 59. 미행 몽타쥬 - 2

- 또 다시 장철이 어딘가로 움직이는 날.  
쌍둥이 형제 수법을 눈치 챈 상도와 도경장, 이번엔 속지 않는다.  
주차장 밖에 있던 성근의 오토바이가 바꿔친 장철의 차를 알아보고  
도경장에게 전화한다.
- 개구리띠기 형태로 세 대의 차가 장철의 차 뒤에 따라 붙는다.
- 갑자기 중고차 시장으로 진입하는 장철의 차, 각종의 차들이 늘어선 미로로 사라진다.
- 도경장, 장철이 일을 치룬 걸 직감하고 조급한 상태에서 미행거리를 좁힌다.
- 백미러를 보다 깜새를 느낀 장철, 쟁빨리 도시 외곽 고속도로로 접어든다.

-고속도로와 국도를 넘나들며 피말리는 미행을 펼치지만 신출귀몰한 장철의 차 사라진다.

-도경장, 번번히 허탕치는 미행에 열받아 고물차를 밭로 차며 돌아버린다.

#### 60. 실내. 텍사스 내실 - 밤

장철, 매우 심각한 얼굴로 생각하다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 장철

여보세요...오늘 웬 사또님이 따라붙었십니다...(묵묵히 듣다가 위협조로) 이딴 식이든 내달 일은 읽는 걸로 합미다...(듣다가)...알겠어요...우리보고만 그라지 마세요! (탁-신경질적으로 전화 끊더니 영남에게) 기자들 펜대 굴리기 시작했다고 작작 해복으란다...교활한 새끼...

그 때 문 밖에서 형남이 동생들과 다투는 소리 들려오고 장철, 눈꼬리가 사납게 올라간다.

#### 61. 실내. 홀 - 밤

홀에 앉아 있던 상도, 우당탕 소리에 놀라 보면 장철이 들고 다닌던 쇠지팡이로 형남을 개패듯 두들겨 패고 있다.

형남, 주인에게 맞는 강아지처럼 몸을 굴리며 피하지만 쇠지팡이가 훨정 도로 마구 휘두르는 장철.

##### 장철

(홍분해서) 호로새끼야! 지금 때가 어느 땐데 개벼룩을 몬 고치고 약처묵겠다고 지랄이고...

영남이 가까스로 장철을 뜯어 말린다.

상처투성이가 된 형남, 피가 섞인 침을 뱉으며 쿵- 문을 닫고 나가버린다.

상도, 장철의 살인적인 눈빛을 보며 꿀꺽 침을 삼킨다.

62. 실내. 내실 복도 - 밤

긴장되는 얼굴로 내실 구석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는 상도.

잽싸게 복도로 나가다가 막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철과 맞닥드린다!

온 몸이 굳어오며 긴장되지만 어금니를 꾹 물고 인상을 펴는 상도, 꾸벅 인사하고 나간다.

장철, 상도의 뒷모습을 잠시 보다 피곤한 듯 쇼파에 몸을 던진다.

63. 실내. 홀 - 밤

금발의 러시안 걸들이 무대 위에서 육감적인 춤을 추고 있다.

보드카 원샷하고 쿵- 잔 내리는 장철, 쓸쓸한 보쓰의 얼굴이다.

영남이 침울한 얼굴로 옆에서 묵묵히 술을 들이키고 덩치 몇 명과 상도도 앉아 있다.

장철, 취기오른 얼굴로 짙은 담배연기를 내뿜더니.

장철

팽군 칠년에서 팔년! 느그 놈들 라이프싸이클이다! 대가  
리 쫌 쿄다꼬 까불다가! 핵교가서 푹~ 썩고...출소해가 흥  
청망청~ 한 때 잘 나갔다꼬...동상들이 안 알아준다꼬...오  
바하다가 또 결리스 철창 가거나, 아이든 퇴물이 되뿌는  
삶에 주기! 이기를 극복해보고 싶나? 그라모 냉정을 잊지  
마라! 살아남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것들은 필.수.불.가.  
결.한 기다. 그 외에 모든 것들은...불.필.요.한 기야!

애들 끄덕끄덕...

상도 ‘새끼 맞는 말만 하네...’ 하는 얼굴로 장철을 쳐다본다.

64. 실내외. 영도다리 아래 - 밤

줄줄이 서있는 아베크족의 차들 사이에 도경장 차 안.

도경장

(담배 빼빼 뺄며) 작업 시작 세 달짼데 성과가 없다, 성과가!

상도

(심각해서)...그 동안 다 팔아묵고 키로때기로 함 나올 때 가 됐는데...

도경장

(흐...신음하며 머리통을 통통- 치다가) 물은?

상도

순도 팔십루로. 에이굽예.

도경장

(대뜸 상도를 노려보며) 니 요즘 장사해묵을 거 다 해묵고! 재미 좋다메?

상도

(짜지듯) 안 그라믄! 내는 짊으믄서 이 짓 합미꺼?

도경장

(버럭 소리지른다) 이 달 안에 꼬리 못 잡으면 작업취소야! 죽마...모조리 판매사범으로 잡아 넣는다 이 말이야!  
니도 예외없어!

상도

(서운하고 화난다) 뭐요? 내는 목숨 내놓고 있는데!

도경장

그래? 목숨 내놔가 개우 이 정도가?!

상도

(빈정) 다 관두소! 작품 함 만들자고 연락오는 짭째들 쐐<sup>고</sup> 쌤는데!

도경장

뭐?...이...이 새끼...디질래!

도경장, 인상을 쓰며 주먹이 올라가는데 스르륵 도경장 옆에 차 한 대가 와 선다.

차의 유리창이 내려가는 순간, 상도가 그 차 안의 인물과 눈이 마주치더니 얼굴이 굳는다.

도경장, 상도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원쪽으로 돌린다...배형남이다!

여자 둘을 태우고 시시덕거리던 배형남...

상도, 도경장과 번갈아 눈을 마주치다 급하게 시동을 건다.

도경장, ‘일단 잡아!’ 외치고 상도와 동시에 차문을 열고 뛰쳐 나온다.

배형남의 차 안으로 몸을 던지는 도경장.

여자들이 까악- 비명을 지른다.

기어를 넣다가 도경장에게 목덜미를 잡히는 배형남, 도경장을 뿐리치고 차 밖으로 도망친다.

상도, 당한 걸 갚아 주듯, 문 열고 나오는 배형남의 눈두덩을 세게 갈긴다.

억- 하며 차 안으로 쓰러지는 형남.

도경장과 상도, 배형남이 차 안에서 육박전을 하며 뒤엉킨다.

65. 실내. 수양서 취조실 - 밤

배형남, 눈두덩이 붙고 얼굴 여기저기가 터져서 앓아 있다.

도경장과 김형사 둘러 서서.

김형사

(파일 보며)...서울에서 한켠, 마산 네켠! 새끼...이번에 제

조로 추가기소되믄...니 읊 해 몇 살이고...좆도 마흔은 돼  
야 나오겠다.

### 배형남

내는...2g 소지, 현행범. 그게 다니까네...법대로 하소.

### 도경장

잘 들어라, 이 뽕쟁이 새끼야...(두툼한 파일 들고) 이게  
다 너에 대한 수사자료다. 니한테 약받아 쳐먹은 놈들이  
진술한 양만 3키로! 포상금만 삼천만원이야!

### 배형남

씨발, 어데 가나 첨자새끼들때메...상도 이 개새끼...

### 도경장

이 씨발자식이! (파일로 형남 머리 꽉-) 내가 니를 이때  
까지 안 잡아들인 이유는 한 가지다. 장칠이하고 같은 제  
조사범으로 입건하기 위해서! (퍽-!) 니가 이 자리에 있는  
거를...행운에 여신한테서 간택! (꽉-!) 받은 기라고 생각  
해라! 어쩔끼가? 제조로 10년 갈끼가...(퍽-!)

### 김형사

(덩달아 때리며) 장칠이 넘기주고 판매로...2년 갈끼가?

배형남, 머리를 쥐어 뜯으며 궁지에 몰린 쥐처럼 눈알이 돌아간다.

### 배형남

...지 동상은요?

### 도경장

(은밀한 톤으로) 오야붕이 뭐꼬? 이랄 때 혼자 쓰는 기  
오야붕이다..

상도 클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초조한 얼굴.  
내실로 들어가다 배영남을 보곤 긴장한다.

상도

큰행님 어데 가셨십니까? 물 떨어진 지 쯤 됐십니다.

배영남

쫌만 기달리라...(슬그머니 상도를 꼬라보며)니...형남 행님  
몬 봤나?

상도

예? 요즘 통 안 보이시데예...

꾸벅 인사하곤 홀로 나가 앉는 상도, 긴장되는 듯 쉼호흡을 한다.

## 67. 실내. 수양서 취조실 - 새벽

배영남, 파일을 뒤적이고 있다. 제조사별들의 얼굴이 나열된다.

배영남

(흥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김형사

빨리 봐라 새끼야!

배영남

니미...마스크쓰고 안경으로 눈끼리 가린 놈을 어떻게 빨리 봅니까!...

도경장, 답답하다. 갑자기 배영남을 연타로 때리며

도경장

(퍽퍽-!) 공장! 공장은 어디났 말이다!

### 배형남

(머리 아파) 씨...씨바 내가 어딨는 줄 어케 알아-!

네 발달린 이동식인데!

### 68. 실외. 국도 - 밤

국도를 달리는 봉고차.

<내게도 사랑이> 흐르는 차 안에 정교하게 셋팅된 제조기구들이 보인다.

기구들에 가려 운전하는 남자의 얼굴 잘 안 보인다.

봉고차 국도변 공터의 어두운 구석에 선다.

마스크에 모자, 용접용 안경을 쓴 남자, 내리더니 차 안에서 염산에페트린  
깡통을 땐다.

깡통에서 허옇고 독한 김이 흘러 나오자 주변의 풀과 나무가 금방 거멓게  
죽는다.

온도를 유지하며 교방기 속에 넣은 염산에페트린을 데우니 검은 고체 둉  
어리가 생성된다.

덩어리를 삼각프라스크에 넣고 공업용 아세톤으로 세척하며 작업을 하는  
남자.

### 69. 실내. 내실 - 새벽

장철과 배영남, 흥분해서 언성을 높인다.

### 장철

(짜증스럽다) 이기 도대체 몇 번째고? 요전에 기집아 둘  
반죽음을 만들으가 검찰청에만 수천 들었제! 그리고 또  
저번에...(하다가) 하~ 이새끼가 내를 멀로 보고...이번엔  
정신차리게 둬!

### 배영남

지가 하나 밖에 없는 형이라꼬 너무 오냐 오나해가... 행  
님...놔두믄 맷 년 묵을 게 뻔한데...

### 장철

을매나 크게 사골쳤으면 긴급구속에 면회도 안 시키주노!  
내가 또 검찰청 들락거리봐! 글마들이 약점을 잡아가 또  
뭘 던지달랄끼고? 까딱 잘 몬하믄 우리가 타겟이야! 봐  
라...지금 같은 판국이 을매나 가겠노...최단기간 안에 한  
껏...그래야 않겠나. (단호하고 냉정한 얼굴로) ...나중에 형  
남이 입막음 철저히 시키라!

### 배영남

(얼굴이 좀 굳어지며) ...알겠십니다...

### 장철

(진정하며) 이번엔 크다. 잘 되믄 당분간 쉽게 갈 수 있  
다. (잠시 생각하다) ...은제냐?

## 70. 실외. 텍사스 거리 - 새벽

먹이를 포착한 사냥꾼같은 얼굴의 상도, 황급히 걸으며 소형 녹음기에 귀  
를 갖다 댄다.

영남의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 11시 청담입니다...

### 상도

(흡족하게 웃으며 전화하더니) 걸리들었심마다!

### 도경장

(목소리) 어 데고? 엉?...

상도, 말을 않고 의미심장하게 웃는다.

뭐라고 떠드는 도경장 목소리가 핸드폰에서 모기소리처럼 울린다.

## 71. 실내외. 대로변 차안 - 아침

차창 밖, 분주히 오가는 등교길 학생들, 출근하는 회사원들 보인다.

창 밖 일상의 모습과 대비되는 차 안에 둘의 모습.

상도 소형 녹음기 꺼내 누르더니 도경장에게 종이를 읽으라는 시늉.

도경장의 표정 울그락 불그락.

### 도경장

(떨떠름한 목소리) 나 도진광은 향정신성의약품 불법제조

및 공급자인 장철을 체포함에 있어, 수사협조자 이상도의

공과를 인정, 향후 판매행위를 눈감아주기로 약속하며...

시간경과.

각서를 상도에게 건네주는 도경장, 금방 한 대 칠 것 같은 표정이다.

### 상도

고마 우리 운명공동체를 위한 안전장치 아이겠심미꺼~

딱 일년만요! 눈감끼요... (각서를 들어보이며 매섭게) 지

흔자 안 죽십미다!

도경장, 인주까지 준비해 주는 상도를 노려보다 꽉 웃고는 지장을 찍는다.

### 도경장

(이글이글) 어데...

### 상도

(히죽 웃으며) 낸 인자 아웃입미 데이~

## 72. 실내. 오피스텔 - 낮

담배 하나씩 꼬나물고 침대 위에 버려덩 누운 상도와 성근.

상도

사돈에 머라꼬?

성근

즈의 동네 선배님 어무이 사돈에...사촌동생에 아덜예!

상도

(끄덕끄덕) 그래...지게꾼으론 안성마춤이다. 일단은...(기지  
개켜며) 폭~ 며칠 쉴 동안...도경장 발바닥에 쫓빨라게 땀  
쯤 나겼네...혜혜~ (그 때 핸드폰 울리자) 여보세요? (오바  
하며) 어우? 나에 지영줘~

### 73. 실내. 수양서 - 낮

형남, 컴퓨터 안의 용의자를 사진 하나하나에 용접용 안경과 마스크를 마  
우스로 갖다 씌여보며 머리를 갸웃갸웃하는 품이 완전 설렁설렁 장난이다.  
도경장, 급하게 들어오다가 그런 형남을 보곤.

도경장

야! 저 새끼 됐다. 집어너뿌라!

하는 순간 형남이 어-? 하며 얼굴 하나에 꽂힌다.

### 74. 실외. 삼촌 집 뒷마당 - 낮

지영이 거적대기 등 위장물을 치우자 땅에 조금 파묻힌 소형 냉장고가 나  
온다.

상도가 긴장한 얼굴로 냉장고 문을 여는데...점점 보이는 내용물.  
제조의 마지막 공정으로 냉장을 하고 있는 2키로단위의 히로뽕 덩어리 다  
섯 개...10키로!

지영, 엄청난 양의 약을 보며 감당 안 되는 얼굴을 하다 후다닥 구석으로 뛰어가더니 급하게 치마를 걷고 오줌을 쏴- 갈긴다.  
굶주린 약물 중독자의 생리적 반응이다.

#### 75. 실내. 수양서 - 낮

형남, 장난스레 뜻들이며 마우스로 용의자 사진에 씌워졌던 용접용 안경과 마스크를 떼낸다.  
눈을 크게 뜨고 모니터를 노려보는 도경장.  
모니터에 삼촌의 얼굴! 명확히 드러난다.

(위의 두 썬 교차되며 냉장고의 내용물과 모니터의 삼촌 얼굴, 상도와 도경장의 얼굴이 번갈아 보여진다.)

장면전환.

형남 끌려가며 ‘지협조마이했심미데이~’소리치고...  
도경장 독기 어린 얼굴로.

#### 도경장

이상도...이 상노모새끼...햐~ 재밌게 돌아가는구만...

#### 76. 실내. 상도 차 안 - 낮

상도, 차 안에 앉아 심각하니 생각에 잠겼다.  
지영이 볼 일을 마치고 들어와 상도 눈치를 보는데.

#### 상도

은제 발견했노?

#### 지영

오늘 아침에...

상도

니 입무겁제?

지영

(끄덕끄덕...도무지 불안한 얼굴) ...을 맹큼이고?

상도

(긴장) 쫌 되제...저 인간...인자 걸리믄 최하가 무기거덩...

지영

음...음마야...(발을 달달달 떨며) ...씨발 갖다 버리쁠까!

상도, 버린다는 말에 흑- 지영 보며 마약상의 본능적인 황당함을 보이자.

지영

(기가 죽어) 오...와...?

상도

(금방 이성 찾으며) 그란다고 해결되는 기 아이다 이게...

(지영을 힐끗 보더니) 잘들으라. 아무한테도 말하믄 안돼!

응? 삼촌을 위해서도. 알겠나?

## 77. 실외. 삼촌 집 뒷마당 - 낮

지영, 또 다시 화장실로 뛰어 들어간다.

그 순간 상도, 챙싸게 뒷마당으로 들어선다.

조용히 위장물을 치워내고 냉장고 문을 여는 상도.

덩어리 두 개를 꺼내고 문을 닫다가 다시 열더니 한 개를 더 꺼낸다.

상도

(홍분되는 얼굴로 중얼) 씨바...심팠다...

78. 실내. 수양서 - 낮

형사들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주임실에서 나오는 도경장, 신이 나서 고개를 꺼떡꺼떡- 춤을 추듯 책상 앞을 왔다갔다 한다.

김형사

(다가와서) 장소는 행남이 말로도 맞는 것 같다캅미다.

도경장

상도말이 거짓말은 아이라?

김형사

그란 거 같은데예.

도경장

독안으로 쥐새끼들이 다 모인다 이 말이제...한 방에...

김형사

상도는예? 일단 잡아다 놔야 않겠습미꺼?

도경장

상도? 난중에 잡아도 돼! 영원히...(퍽-웃으며 손바닥을  
쫙- 펼쳐보이곤) 여계를 몬 벗어나는 놈이다!

쫙- 펴던 손가락을 하나둘...오무리며 주먹을 만드는 도경장.

먹이의 정맥에 이빨을 끊기 직전 맹수와 같은 도경장의 얼굴로 화면 빨려 들어가며.

도경장

(보이스 오버) 사년...밥맛도! 기집맛도! 단잠 끝에 맞이하는  
는 아침햇살에 맛도! 몽조리 잊어뿐 기 사년이다...내일  
아침부터 그 새끼는 지옥같은 독방에서 눈을 뜰끼다. 내

일 아침부터 내는 꿀맛같은 잠에서 깨어나 찬란한 아침  
햇살을 불끼다. 도진광이...인자 뭐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끼다...그라기 위해선 제조기구와 교수...

#### 79. 실내. 뽕네프 룸 안 - 저녁

상도, 넓은 룸 안에 홀로 앉아 상념에 잠겨 있다.  
도경장의 나레이션에 붙어서 상도 나레이션 흐른다.

##### 상도

(보이스 오버)...교수 그리고 4키로...증거물로 충분하제. 갱  
찰한테 쟁취하가 6키로 잃어뺐다꼬 자진신고할 미친놈은  
없다. 하모...일생일대에 찐쓰! 이거이 완전범죄다!...삼촌?  
내가 누구때메 이 바닥에 들으왔노? 넘에 인생 죄짓으믄  
빠지나갈 때도 도와주는 기 당연한거 아이가?

상도, 한 잔 꺾더니.

##### 상도

(상념을 떨쳐내 듯 중얼) 필요...불필요...

그 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성근, 앗면 얼굴이지만 덩치는 씨름선수급 애  
들이 따라 들어온다.

##### 성근

(두 뽕마니에게) 인사드리라. 큰행님이다.

성근의 뽕마니 둘, 90도 인사하자, 상도 거드름피우며 고개 끄떡하더니 술  
잔을 돌린다.

##### 성근

행님, 애털은 와...

상도, 잔을 들고 건배하자 다들 따라서 잔 듈다.

### 상도

(비정한 얼굴) 성그나...지게꾼 알아보는 거 때리치라. 그  
라고...우리 한양가자. 인자 전국구다!

## 80. 실외. 쉼터 마당 - 저녁

삼촌,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빽빽 뺀다.

그 옆에 노인들 지영이 다가가자 슬금슬금 흘어진다.

삼촌, 지영과 눈이 마주치더니.

### 삼촌

혹시...글마 왔다 갔나?...(지영이 말 못 하자) ...그래...

삼촌, 절망적인 얼굴로 지영을 보다가 스르륵 얼굴에 웃음기가 오르며 허  
허...자조적인 웃음을 흘린다.

그러다...하하하...점점 호탕하게 바뀌는 삼촌의 웃음.

삼촌, 방에 들어가 축쳐진 등짝을 드러내고 뱃가죽에 당뇨주사를 꽁는다.

## 81. 실내. 뽕네프 룸 - 밤

룸 안의 상도, 여자애가 한눈을 판 사이 맥주잔에 풍당- 약조각을 넣는다.

상도가 잔을 주자 쪽- 들이키는 여자애.

성근과 뜰마니들은 다른 여자애들과 노래하며 아자아자- 파이팅을 외친다.

그 때 덜컹- 문이 열리며 흥분한 얼굴로 지영이 들어온다.

상도, 올 게 왔다는 얼굴을 하더니 결령히 쇼파에 눌러 앉는다.

성근이 지영에게 인사 꾸벅하자 애들도 꾸벅하곤 다시 노래에 열중한다.

### 상도

(지영 팔을 당겨 끌어 안으며) 어우 왔나~ 나에 츠탄~

지영

(노래소리에 상도 귀에 대고 소리친다) 니 무슨 짓 했나?  
니 그거 훔치갔나?

상도

(능청) 면 말이고?

지영

(노려보다가) 새끼야...니 그것 밖에 안 되?

상도

(껄렁하게 지영 몸 쓰다듬으며) 무신 말인지 통~ 몬 알아  
듣겠네...

지영

(상도 몸을 밀치며) 야! 삼촌이 지금 머하는 줄 알아?!

상도

(비열하게) 에이 씨...몰라! 내가 그 개만도 못 한 인간 하  
는 짓을 왜 알아야 되는데!

지영

그라모 너는?...지금 개만도 못 한 짓 아이가?...

상도

(짜증난다) ...씨발 니 멀 원하노? 더 이상 쏠리서 몬 참  
겠어? 니 뭂을 원해?

상도, 맥주잔에 풍당- 약조각을 넣더니 지영 코 앞을 돌린다.  
지영, 눈 앞의 술잔에 반사적으로...자기도 모르게 꿀꺽- 침을 삼키는데...  
그 꿀을 보며 깔깔 웃는 상도의 모습, 가학적이다.  
방금 자기 느낌에 모욕감을 느끼는 지영,  
눈물이 팽- 돌아서 술잔을 쳐버리더니 짜악- 상도의 따귀를 갈긴다.  
노래가 뚝- 끊기며 조용해지고 다들 놀라서 쳐다본다.

상도

(얼굴이 돌아간 채) 씨발년...염산보지 다 된 거 시궁창...

지영

그래! 시궁창에 빠지가 해매인 거 와 건지났나? 응? 내한  
테는 와 그래 해줬는데? 이상도! 내 쫌 봐바!

상도

(외면한 채) 꺼지라...

지영

(조용히) 삼촌...다 안다. 그냥...실 없는 사람처럼 웃기만  
하드라...넋이 나가서...

상도

(갑자기 애들 보고 벼락-) 노래 일발 장전!

어정쩡 애들이 노래를 다시 시작한다.

상도, 지영이 보란 듯 옆의 여자에 가슴을 거칠게 애무한다.

지영, 눈물을 훔치며 상도를 바라보다...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다.

시간이 흐르고...흐를 수록...여자애를 애무하는 상도의 얼굴이 상념의 고통  
으로 점점 일그러진다.

## 82. 실외. 청담호 - 밤

넓게 펼쳐진 호수 위로 추적추적 비가 내린다.

밤낚시꾼들이 켜놓은 랜턴이 드문드문 호숫가를 밝힌다.

호수가 내려보이는 언덕, 도경장을 비롯한 형사 네 명 진을 치고 있다.

형사들, 죽도, 진압봉 등으로 무장했다.

도경장

(작게) 교수는?

김형사

(핸드폰하며) 움직이네 예...오토바이 따라 붙었십니다.

도경장, 입이 찢어질 듯 웃지만 무성영화처럼 소리를 안 내는...

83. 실외. 달동네 입구 - 밤

달동네를 터벅터벅 내려와 택시를 잡는 삼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오토바이 한 대가 삼촌의 뒤에 따라붙고 또 그 뒤에 차 안의 시점 하나.

84. 실내외. 택시 안 - 밤

교외로 빠져나가는 택시.

삼촌, 초조한 얼굴로 택시 안에서 시계를 본다. 10시 30분.

휴- 한숨을 쉬는 삼촌,

가슴에 안은 빈약한 봉지를 만져보곤 체념하는 얼굴을 한다.

등 뒤에 따라 붙는 오토바이를 눈치채지 못 한다.

85. 실내. 뽕네프 - 밤

여자애들 옆에 끼고 목청이 터져라 노래하는 상도와 성근.

86. 실외. 교외 - 밤

국도변 허름한 차고.

삼촌, 두리번 주변을 살피더니 차고의 샷시를 올리자 봉고차가 나타난다.

어둠에 숨어 삼촌을 지켜보는 오토바이.

그 때, 오토바이 옆으로 다가가는 차 안의 시점.

그 시점이 스르르 오토바이 옆에 멈추고...곧 누군가 화면 밖으로 오토바이를 당기고...오토바이 쓰러지고...우당탕쿵- 소리 들린다.

87. 실내. 뽕네프 - 밤

상도, 목청이 터져라 노래부르다 풀썩- 쇼파에 널부러진다.

게슴츠레 뜬 눈으로 시계를 보면 11시가 다 됐다. 눈을 감아 버린다.

88. 실외. 청담호 + 교외 교차 - 밤

장철과 배영남이 탄 검은 세단이 호숫가에 진입하는 게 보인다.

드디어 장철의 현장을 목격하는 도경장, 재빨리 다가가며 거리를 좁힌다.

잠시 후, 봉고 한 대가 진입하는 게 보인다.

도경장, 행복해서 죽을 것 같다.

우산쓰고 점잖게 서 있는 장철, 봉고가 오는 걸 발견한다.

봉고차가 장철의 차 옆으로 가까이 다가와 서더니 아무 움직임이 없다.

장철과 영남이 슬그머니 다가가고...도경장 눈알이 커지다가...꼼짝마-!

하는 도경장의 신호와 동시에 형사들 와- 하며 달겨든다.

장철, 경찰들을 보고 놀라 당황한다.

영남이 재빨리 제조원료로 보이는 액체를 호수에 쏟아부으려다 김형사에게 제지당한다.

형사들, 장철과 봉고를 에워싸고 도경장이 쓰윽- 빛 속에 등장한다.

도경장

(득의에 차서) 그 동안 만수무강하십미꺼~...이 씹새까!

장철을 향해 목을 주욱- 긁는 시늉하는 도경장, 봉고에 다가가더니.

도경장

(똑똑 봉고문에 노크하며) 나오소, 교쑤님~

답이 없자 가소롭다는 듯 으헤헤~ 웃더니 드르륵-! 문을 열어재낀다.  
문이 열리며 눈 앞에 펼쳐지는 제조 기구들...  
도경장 웃음소리 들리며 카메라 빠지는데...

봉고차 앞에 당황해하는 삼촌과 양 옆에 성근의 두 똘마니들이 서 있는  
게 보인다.

삼촌의 봉고차는 교외 차고에 그대로 있다.

도경장의 얼굴로 컷되면 웃음소리 잣아들며 일그러져가고...  
순간, 장철과 영남, 눈이 마주치며 안도의 눈빛을 교환하고...  
도경장 눈 앞의 봉고 안, 낚시꾼 하나가 낚시도구들을 들고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려 앉아 있다.  
도경장, 고개를 돌리면 우산으로 비를 가지고 담배를 피며 여유로운 장철  
과 영남 보인다.  
물에 빠진 생쥐모냥으로 졸딱 젖은 형사들과 도경장...황망하다.

#### 89. 실내. 뽕네프 - 밤

핸드폰이 울리자 성근이 쟁싸게 받아 잠시 듣더니.

성근

(핸드폰 끊고) 아아들 쓸만하네예. 행님... (노골적인 궁금  
함) ...물이...증말로 있긴 있어예? 어데?...

상도

(성근 힐끗 보곤 어림없다는 얼굴) ...일 쫌 보고 올께. 임  
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일어나며) 연락하께.

#### 90. 실내. 수양서 주임실 - 새벽

책상 위에 벌러덩 누워 있는 도경장,  
두통이 사방으로 오는 듯 양 손으로 오른 편, 왼편 머리통을 쿵쿵- 때리며  
분을 못 삭이고 요상야릇한 신음소리를 낸다.  
벌떡 일어나더니 상도의 핸드폰에 계속 전화를 해댄다.  
전원이 꺼져있다는 반복되는 안내음성.  
옆에 김형사 풀이 확- 죽어 도경장 눈치만 보고 있다.  
우리에 간힌 맹수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도경장.

### 도경장

...좆맹거...이상도...이 뽕쟁이새끼...몬 믿어! 몬 믿어! (홍분  
해서 중얼) 이... (눈 앞에 스티커 보곤) 인류에 죽같은...

그 때, 창 밖으로 여유만만한 얼굴의 장철이 이끌려 나가는 게 보인다.  
장철, 도경장을 돌아보며 코웃음을 친다.  
그 모습에 겹쳐 고검장과 주임이 들어오며.

### 고검장

어이~ 구제불능 도진광경장...아직도 마약수사한다고 들쑤  
시고 다니나?

도경장, 금방 덤벼들 듯...

### 고검장

(주임에게) 그 동안 장철이 관련 수사기록하고...배형남이  
체포일지...현장출동보고서...거 다 갖고 오쇼!

### 도경장

(이글이글) 여 뒷구멍에 빠다질했구만 절마가...

### 고검장

뭐?! ... (도경장 노려보다) 투약자들 상대로 현금갈취, 직  
권 남용에 대민파실! (주임에게 서류 내밀며) 검사장님  
결제떨어졌어. 이 자식 당분간 일체의 수사업무에서 제외  
하고 인사발령 대기시키쇼!

도경장, 우- 책상을 엎으며 돌진, 고계장에게 달겨든다.

### 도경장

(고계장 먹살을 잡아 거칠게 밀어부치며) 어이 검찰나  
리...을매나 받아 쳐묵었노!

### 고계장

(몸싸움하며) ...니가 피라미 잡을 때 저 놈이 8개 지검에  
잡아준 상선이 몇 명인 줄 알아?! 마약 수사는 너같은 새  
끼 열놈보다 저 놈 하나가 더 중요해! (쩌억-! 도경장 따  
귀를 갈기며) 저 놈은 공공재산이야 이 병신아!

따귀를 맞은 도경장, 눈이 뒤집혀 주먹을 쳐든다.

형사들과 김형사, 우르르 달려와 도경장을 뜯어말린다.  
엄청난 파워로 형사들을 떨궈내고,  
고계장을 향해 도경장 주먹이 날아가는 순간,  
도경장의 뒤통수를 빽--! 죽도로 갈기는 주임.

장면전환.

김형사가 머리에 대고 있던 얼음수건을 탁- 쳐내는 도경장,  
옷이 형클어진 채 기가 죽어 구석에 앉아 있다.  
고계장, 넥타이를 바로 매고 평정을 찾은 얼굴이...냉철하다.

### 고계장

형남이 진술은 근거가 희박하니 검치때 다시 봐야겠고...  
증거물 염산에 페트린 한 통, 거 중국편에 부탁받은 거라  
는데...사라진 그 두 놈 말요. 제조 및 판매책에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 놈들 우리가 잡을테니 서류 협조 좀 해주쇼.  
자- 매듭집시다!

### 주임

(협조적으로) 예! 그래 하입시더...

고계장, 일어서며 써늘한 눈으로 도경장을 비웃는 듯 깔아보다.

### 고계장

거 경찰조직에서 머라 하드라? 실적 떨어지는 친구들...누워 크는 콩나물인가?...

고계장, 나가버리고 심한 모욕감에 충혈된 눈을 부르르 떠는 도경장.

### 91. 실내외. 양산 근처 폐쇄 공장 - 새벽

검푸른 새벽기운에 점령당한 공장.

뜰마니 둘이 상도에게 인사하곤 차를 타고 출발한다.

상도, 공장 구석으로 들어서면 삼촌, 기가 죽어 봉고차 옆에 앉아 있다.

상도, 봉고차 안의 제조기구 등을 훑어보더니 한심하다는 듯 삼촌을 본다.

### 상도

(위 아래 흘기며) 내가...삼촌 니가 걱정되가 이래 한다고 생각하믄 철저한 오산이다. 착각해지마. 한 가지만 물을께 솔직하게 말해라. 오늘 우짤라 그랬노?

### 삼촌

(능청) ...모...뭘 우짜노...물 줄라꼬 거 갔제...

### 상도

(노려 보다가) ...좋다!

상도, 대뜸 주변의 신문지를 주워 뭉치더니 라이타를 켠다.

후룩- 신문지에 불이 붙는다.

상도가 봉고의 연료 주입구를 열자 삼촌 후다닥 뛰어와 봉고차를 가로막고 선다.

### 상도

비키라! 우짜피 우리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물이다.

### 삼촌

(미동도 않고 초라한 몰골로)...내한테는 결정적으로 유일  
한 생명줄... (상도, 탁- 라이터 다시 키며 노려보고) (그  
런 상도를 바라보다 시선 멀구며) ...에잉, 자슥아! 살멩큼  
챙겼으믄 됐지...와 인제 와서 끼드노!?

### 상도

(눈알이 떨리며) ...

### 삼촌

내...이 바닥에서 삼십년이라. 물은 모질라고 분위기 묵직~  
한 기 순사털 따라붙는 것도 같고...장철이...니가 한 짓 알  
든 가만 안 들끼고...니를 지킬라카믄...그래 그 새끼랑 이  
기회에 꽉- 같이 죽으뿔자! 이거이 내 마즈막 운명이란  
생각이 들데...

### 상도

(눈꼬리가 올라가며) ...그래가...혼자 죽으러 갔나?

### 삼촌

(체념조로 웃으며) 우야노...피는 물보다 진한데...

순간, 삼촌 가슴을 꽉- 밀치는 상도, 얼굴이 분노에 일그러진다.  
삼촌, 봉고에 등을 부딪히곤 힘 없이 바닥에 주저 앉는다.  
으--- 괴성을 내는 상도, 팔로 발로 봉고를 치고 차고 삼촌 두 손으로 막  
으며 겁에 질린다.

### 상도

(광폭하게 난동피며) ...중학생 내 배달시키고 마누라에  
청상과부된 울 엄마까지! 온 집안 식구 이용해묵다가...그  
라다...엄마 죽을 때...니 머했노?

### 삼촌

(눈물이 맷히며)...상...상도야...

### 상도

쫙대기 찔라가며 온갖 쾌락을 즐기고 있었제? 머? 피는 물보다 진해? (쿵- 봉고를 주먹으로 치며) 고사바리때 멋 모르고 넘에 동네 갔다가 죽도록 맞았을 때...입 안에 핏물...껄쭉하이 참말로 쩐하드라! 물보다! 그 때는 머했노?

### 삼촌

(울음이 터진다) 고...고마 해라...

### 상도

(핑- 눈물이 고인다) ...이제 와서 머?...내는 육키로 묵고 떨어지라고? 그래 말하믄 끌이가? 엉? 삼촌! 니가 내 핏줄이가? 삼촌맞나?!

### 삼촌

(주저 앉아 흐느끼며) ...평생...평생에 니한테 갚을 수 없는 빚을 우쭐끼고...다 잘 몯 했다...미안해다...흑...

상도, 흐느끼는 삼촌을 바라보다 눈물이 고인 시선을 멀리 돌린다.

푸른 새벽기운이 공장에 은신해 있는 둘의 모습을 읊씨년스럽게 만든다.

## 92. 실내. 침실 - 아침

침대 맨에 머리를 부딪히며 쾌감이 아닌 고통에 겨운 신음을 내뱉는 부인. 도경장, 소주 나발불며 부인의 뒤에서 격하게 피스톤 운동하면서 액자 안에 웃고 있는 최형사의 사진을 뚫어져라 노려본다. 부인의 신음이 커지는데 잠에서 깬 아이가 올면서 문간에 나타나자.

### 도경장

(취해서) 마!...느그 아부지 웬수 갚아주께! 뚝!

아이, 목이 찢어져라 울음을 터뜨린다.

93. 실내외. 아파트 지하 주차장 - 아침

고계장, 차에 타고 막 시동을 거는데 후진으로 달려오는 도경장 차.

쿵- 들이받는 도경장, 강한 충격에 운전대에 얼굴을 부딪히는 고계장.

코피가 나오 눈두덩이 찢어져 피가 흐른다.

불쑥 차 안으로 들어와 큼직한 손바닥으로 고계장 목을 제압하는 도경장.

고계장

미...미친 새끼...

도경장

함 정리해바라. (손아귀에 꼭- 힘주며) 장철이가 현재 느  
그하고 작당하는 작품이 머꼬?

고계장

(컥-...목이 졸려 기침하다) ...서...서울에...강남에 판매조직  
하나를 작업중이다.

도경장

(멈칫- 흥미도는 얼굴) 그라서...?

고계장

조만간에 장철이가 그 쪽에 물을 넘기기로...

도경장

햐~ 글마가 한양서 작업해주든 부산바닥 뒤봐주는 기...그  
기 느그 하는 일이네? 그래 공을 세워가 중앙지점 함 진  
출해볼라고?

고계장

(고새 딜을 하는 투로) 도경장...서울 일만 끝나면 그 자

식 잡아 넣든 말든 당신 꺼야! 나도 그 새끼 점점 골치가  
아파다! 3개월만 기다려! (yps한 눈빛)...어때?

### 도경장

3개월?... (잠시 생각하다 고계장 죽통을 날리며) 죄까! 세  
시간도 내한텐 천년만년이다! 내는...누워가 말라죽는 콩  
나물이거등! 하루하루 쪼그라들어스... (머리 통통- 치며)  
이라다 영 망개지거등! 그 전에 잡아스 잡도 쫌 자고!! 그  
새끼 밀수! 제조! 판매! 최하 십년짜리로 쳐넣는다! (문  
열고 나가다 말고 씩 웃으며) 함정수사에 마약제조 방조  
죄...니도 약점 있으...

### 94. 실내외. 쉼터 - 낮

쿵- 문이 열리고 도경장이 죽도를 들고 들어온다.  
도경장의 얼굴, 잠도 못 잔 훽한 눈에 갈 데까지 간...산송장이다.  
'쉼터'라는 풋말을 보더니.

### 도경장

(중얼) 쉼터? 죄맹...존쟁터다... (노인들 사이에서 지영을  
발견하곤) 어이 염산...(죽도를 껴떡꺼떡) 쫌 보지.

겁을 잔뜩 먹은 지영, 슬금슬금 다가온다.  
노래방 기기 위에 턱- 걸터 앉는 도경장.

### 도경장

뽕브라더스 두 놈...어딨노?

### 지영

...몰라요.

도경장, 다짜고짜 지영을 불잡아 코 앞으로 당기더니 팔뚝을 걷어본다.  
희미하게 펫줄의 명자옥들이 남아있다.

도경장

(협박조로) 내 지금 당장 니를 잡아 넣을 수도 있다...  
어딨노?

지영

(겁에 질리며)...몰라요. 중말.

도경장, 지영을 노려보다가 톡- 멱살을 놓더니.

도경장

(코웃음을 치며) 내 아무리 해골을 굴리바도 뿩쟁이 니들  
에 윤리가 이해가 안 가거덩. 니가 와 상도 글마하고 불  
어묵을까?...니는 궁금하지도 않나? 와 이창주이가 죽던  
날에 이상도가 거게 있었을까? 행사들 바글바글했는데?

지영

무슨 말이에요?

도경장

그날! 니 죽은 애인, 이창주이! 글마 팔아묵은 놈은 이상  
도야!

지영, 꼭 깨문 입술이 작게 떨린다.

도경장

지살라고 칭구 팔아묵은 놈을 머할라고 그래 감싸고 도  
노? (핸드폰 주며) 어데냐고...만나자고 할래...아니믄 지금  
갱찰서로 갈래?

지영

(굳은 얼굴로 생각하다 핸드폰을 받더니)...담배 한 대만  
주실래예?

도경장, 담배를 하나 주곤 불을 붙여준다.

지영, 한 모금 깊게 뺄곤 도경장을 바라본다.

도경장이 능글능글 웃으며 지영을 보자 지영도 작게 웃어준다.

후- 연기 내뿜으며 핸드폰 버튼을 누르는 지영. 신호 가는 소리가 들린다.

도경장, 귀를 기울이며 가까이 들이대는데.....

퍽- 담뱃불로 도경장의 눈을 찌르는 지영.

지직- 살에 담뱃불이 꺼지며 억- 비명과 함께 고꾸라지는 도경장.

## 95. 실내외. 폐공장 - 낮

상도, 성근과 통화하고 있다.

전화 끊는 상도, 저만치에 풀이 죽어 앓아 있는 삼촌이 보인다.

털석- 삼촌 옆에 나란히 앓는 상도.

둘 다 밤을 꼬박 새 꼬질한 얼굴이지만 많이 진정된 듯.

상도가 담배 하나를 붙이자 삼촌이 하나 달라는 시늉을 한다.

상도가 불을 붙여주자 흑- 연기 뿐다가 콜록콜록 기침을 해대는 삼촌.

### 상도

(안스럽게 보다) 쉼터어? 복지시설? 하이고~ 제조책이...

### 삼촌

(컥- 웃으며) 일종에 위장전술... (말하곤 뻘쭘) ...

### 상도

(한심하다) 와 장철 꼬바리노? 하필이믄?

### 삼촌

(흑- 한숨 쉬곤) 내 나올 때 보석금에 밴호사비까지 글마  
가 다 대줬다. 내 선배 대우해준다고 그라는 줄 알았는데  
꽁꽁이가... INCIDENTAL... 안 하믄 다 사채로 돌리가 이자갚으라고  
협박하데...고마 코깊제...씹쌔끼...

그 때, 상도의 핸드폰이 울린다. 도경장의 음성 녹음이 흐른다.

### 소리

...여게 뽕쟁이 놀개가 있다. (꺽- 따귀 날리는 소리) 이  
년은 너를 위해가 아래 온 몸을 바치는데...(꺽- 지영의  
비명소리) 너는 쥐새끼마냥 비급하게 숨어만 있을까!...

상도, ‘씨발롬...’ 욕을 해대며 뻥- 봉고를 발로 찬다.

### 삼촌

니는 빠지라. 모든 게 다 내 실수로 벌어진 거니까네...

### 상도

(팩- 신경질) 머?! 핵교가서 송장되가 나오게?!

## 96. 실내외. 쉼터 - 저녁

오른 쪽 눈두덩에 정사각 대일밴드를 붙인 도경장,  
탁- 탁- 죽도로 자기 머리통을 치며 모여 앓은 노인들을 노려보고 있다.  
얼굴 여기저기가 터지고 멍이 든 지영, 노인들의 부축을 받고 앓아 있다.  
도경장, 핸드폰이 울리자 재빨리 받는다.

## 97. 실내외. 폐쇄 공장 - 저녁

공장 한 구석에서 삼촌이 입을 가리고 조용히 전화한다

### 삼촌

...원하는 기 내 아이요. 예...그래 하십시오...그럼.

전화를 끊는 삼촌, 잠시 생각하다 다시 핸드폰 버튼을 누른다.  
신호가 가고 곧 전화받는 목소리가 나온다.

## 98. 실내외. 폐쇄 공장 + 텍사스 클럽 내실 교차 - 저녁

장철

여보세요...잘 못 걸었심이다.

짧은 순간 삼촌의 목소리를 듣곤 바로 수화기를 내려버리는 장철.

금방 다시 벨소리가 울린다.

잠시 생각하다 수화기 드는 장철.

장철

(능청스레) 허허...잘 못 걸었다니깐...

삼촌 얼굴의 수많은 주름살들 꿈틀꿈틀 움직이며.

삼촌

십키로데이...내 이거이 마즈막으로 깨끗히 청산하고 싶다.

장철, 신중한 얼굴로 수화기를 내려놓자 영남 다가온다.

영남

(분노에 떨며) 쥐새김미꺼?

99. 실외. 쉼터 – 저녁

도경장, 주임에게 전화를 건다.

맛이 갔던 얼굴에 화색이 돌며 다급하다.

도경장

학실합미다, 주임님. 직접통화했어요! 예?...여보세요? (전  
화끊기자 다시 전화건다) 김형사? 내다! 백운포란다! 글  
마들...

김형사

(목소리) 겸찰이 저래 하믄 먼가 있다 아입미꺼! 행님...그

새끼한테 험한 꼴 당한 거 알지만 쫌 참으소! 잠잠해지  
든...그 때...복수! 예? 쫌 있다!

‘씨바 그게 아이라니깐...’ 하는 얼굴의 도경장.  
김형사가 전화를 끊었는지 핸드폰 보며 욕을 한다.  
지영이 도경장의 통화내용을 듣는다.

#### 100. 실내외. 폐쇄 철공소 - 밤

편의점 봉지 널려 있고, 빵을 어그적어그적 씹어 먹는 상도와 삼촌.

##### 삼촌

(맛있게 먹으며) ...내 다시 드가믄...영치금 쫌 많이 너 줄  
래? 속옷, 양말은 필라! 그게 가우도 스고 따땃하고...

상도, 빵맛이 떨어진다. 빵을 툭 던져버리고.

##### 상도

헛소린... 장철이 살아 있는 한 한 가지 밖에 익어! 침수!

빵을 한 입 삼키던 삼촌, 갑자기 실없이 헤헤...웃는다.  
그런 삼촌을 멀뚱히 보는 상도.

##### 삼촌

생각해 보이...참 오랜만에...멀 묵네...같이...

##### 상도

(생각해보니 그렇다. 하지만 내색 않고) ...지금부터 제발...  
암 것도 해지 매라. 응? 내 시키는 것만 해라. 알겠나?

##### 삼촌

(힐끗 상도를 보곤) 알았어, 알았어...오매...하...이거 우유  
를 마셨드니 장이 괴있나...

삼촌 배를 불잡고 일어서더니 두리번 두리번 주변을 살핀다.

상도

(인상 꽉 구기며) 씨바 저 멀리 가라! (투덜투덜)...

상도, 삼촌이 멀어지자 전화를 한다.

성근

(목소리) 돌아봤는데 예...빠질 구멍은 양산 방면이 쯤 허  
술해예!

상도

그래...움직이야겠네...

성근

...그란데 행님?...거 헌트라도 쯤...물이 어딨는데 예?

상도

새끼... 하느님도 모린다. 내만 안다. 야- 인자 부산바닥  
징글징글~해다. 페뜩 원정가뿔자, 씨바! 그리고...(골치 아  
푸다) 우리 끈데...한 일년 폭- 드가 썩을 데 읊을까?

하는데 부르릉- 봉고차의 시동걸리는 소리.

전화 끊고 일어나 차 있는 곳으로 가는 상도.

봉고차, 이미 국도변으로 진입해 쏟살같이 커브틀어 사라진다.

상도, 다급히 삼촌에게 전화하지만 받지 않는다.

## 101. 실내외. 봉고차 - 밤

삼촌, 핸드폰 울리지만 받지 않는다.

카셋트를 꾹 누르자 <내게도 사랑이> 흘러나오고,

운전하며 노래를 따라부르는 삼촌 얼굴이 점점 비장해진다.

102. 실내외. 슈퍼살롱 / 밤

장철, 운전하고 조수석의 영남, 철컥- 엽총을 장전한다.

103. 실내외. 도경장 차 / 밤

도경장 눈을 부릅뜨고 운전하며 죽도에 은박테잎을 강하게 감는다.

104. 실내외. 쉼터 + 상도 차 교차 - 밤

지영, 여기저기가 펴렇게 명들고 부은 얼굴. 상도와 통화한다.

지영

행사 갔다.

상도

어 데? 어 데라카드나?

지영

백운포...

상도

알았다! (끓으려다) ...니는? 팬찮나?

지영

옹...(생각하다) 행사가 창준오빠 죽은 날 얘길 하네.

상도

(멈칫) ...

### 지영

한 가지만 말할께...(찡 눈이 젖으며) 니 내한테 빚있다.

빚있으니까...(울음 터진다) 씨발새끼야...죽지는 말아라.

### 상도

...(할 말을 찾다가 팩- 언성 높이며) 그래! 갚을께! 재수

亏게!

전화 끊는 상도, 악셀을 밟으며 생각한다...

그러다 ‘에이씨!’ 참으로 싫지만 어쩔 수 없다는 얼굴로 전화한다.

## 105. 실내외. 도경장 + 상도 차 교차 - 밤

### 상도

(능청) 아파 와 그래 연락이 안 돼요~

### 도경장

(느긋하게) 거 어데고?... (핸드폰을 든 손 손바닥을 보며)

손바닥 안 아이가...?

### 상도

에이~ 다 장철이 학실히 잡을라고 그랬다 아입미꺼~ 장  
사 한 두 번 해요? 생장님...그 운짱...봉고차...쫌...아는 사  
람이거든예?

### 도경장

(씨이익- 웃으며) 내도 잘~ 안다.

### 상도

그렇죠! 잘~ 아시죠! 근데 우리 목표가 장철 아입미꺼?

봉고차하고 장철이 잡고...쫌...난중에 잡죠...쫌만 난중에...

예? 아이~ 그 인간 죽도 아인...은제든지 잡을 수 있다 아

입미꺼! 예?!

### 도경장

(아무 말 없다가 냉혹하게) 마-...회전목마가 안죽도 돌고  
있다. 빙글빙글...내리고 싶으로 내릴 수가 없다.

106. 실내외. 차 안 - 밤

똑- 끊기는 전화.

### 상도

(소리친다) 씨팔 영감탱이...팽생을...팽생에 골칫거리!

악셀을 드세게 밟는다.

107. 실외. 백운포 - 밤

삼촌, 봉고차를 갯벌,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는 으슥한 곳으로 몬다.

장철의 슈퍼 쌀롱이 어둠 속에 진입하더니 상향등을 깜빡- 하고 켠다.

삼촌이 봉고에서 내리자 장철과 영남, 차에서 내려 다가온다.

긴장이 되는 지 꿀깍...침을 삼키는 삼촌,

드르륵- 봉고문을 열어 냉장고에서 봉투를 꺼내 장철에게 건낸다.

### 장철

(봉투 안을 보더니 삼촌을 째려보며) 머꼬? 4키로?

### 삼촌

(부르르 떨지만 용감하게) 니캉 내캉 핵교가믄 만사행통  
이다 이 씨발럼아!

장철의 표정이 확- 험악해지고 영남이 위력적인 발차기로 삼촌의 면상을  
갈기자 삼촌, 비참히 나가 떨어진다.

삼촌, 영남의 주먹과 발에 여러 대를 맞으며...  
이빨이 나가고 코뼈가 부러지며 처참히 무너진다.  
그러나 성이 안 풀리는 영남, 엽총을 들이대며 삼촌에게 다가오는데...  
빠악- 은박 죽도로 영남의 대갈통을 갈기며 나타나는 도경장.

### 도경장

(갯벌에 짜렁~ 울리는 목소리) 장처이~ 오늘 하늘에 맹세  
코 니 제삿날이다!!!

당황하는 장철, 재빨리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건다.  
장철, 악셀을 밟으며 무조건 돌진한다.  
도경장, 아슬아슬하게 차를 피하고 쾅-! 입구를 막은 도경장 차를 들이받는 슈퍼쌀롱.  
후진하는 장철, 머리에 피가 흐르는 영남이 조수석에 타며 엽총을 갈긴다.  
타-앙- 갯벌에 메아리지는 총성이 울리자 우뚝- 서는 도경장.  
도경장, 권총을 꺼내지만 강력한 화력의 엽총 앞에 속수무책이다.  
순간 장철이 악셀을 밟으며 돌진한다.  
도경장, 아슬아슬하게 차를 피하고 쾅-! 도경장 차를 들이받는 슈퍼쌀롱.  
조수석의 영남이 엽총을 쏘아댄다.  
충격에 입구가 조금 열리자, 틈새를 더 벌리기 위해 후진하는 순간,  
영남 쪽의 창으로 쑥 들어오는 도경장, 영남이 총을 겨누자,  
팔로 쳐내고 앞유리를 향한 총구가 불을 뿜으며 산산조각나는 유리.  
악- 비명을 지르는 영남의 얼굴에 수백개의 유리조각이 박히고,  
장철의 차, 콘테이너를 들이받는다.  
도경장, 멀리 나가 떨어져 콘테이너에 부딪히며 오른 팔에 골절을 입는다.

### 108. 실내외. 상도 차 - 밤

총소리가 들리고 멀리 갯벌이 보인다. 상도, 속력을 더 낸다.

### 109. 실외. 백운포 - 밤

기회를 잡은 장철, 차에 올라타더니 틈이 벌어진 퇴로로 빠져나간다.  
바닥에 널부러져 있다가 장철의 도주를 보는 삼촌,  
쌩-...욕을 하며 비틀...몸을 일으켜 봉고에 올라타 퇴로로 쫓는다.  
봉고차도 횡- 달려가버리자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도경장,  
엉망으로 찌그러진 자기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지만 잘 안 걸린다.

#### 110. 실내외. 상도 차 - 밤

갯벌이 가까워 오는데 좌측으로 장철과 삼촌의 봉고가 스쳐 지나가는 걸  
발견하는 상도.  
끽- 브레이크를 잡으며 유턴하는 순간 직진하는 도경장의 차와 아슬하게  
부딪힐 뻔 한다.  
상도, 황급히 도경장의 차 옆에 따라 붙고 둘이 창을 통해 마주 본다.

#### 111. 실외. 감천항 - 밤

장철, 다급히 어디로 갈지를 살피는 순간, 달려오는 봉고차를 발견.  
다시 차를 출발시키려는 순간 꽁- 슈퍼쌀롱의 범퍼를 들이받는 봉고차.  
장철의 세단이 항구를 감싸고 있는 철조망에 쳐박혀 꿈쩍달싹 못한다.

#### 112. 실내외. 봉고차 - 밤

충돌의 충격에서 게슴츠레 실눈을 뜨며 정신을 차리는 삼촌,  
앞 유리창이 쪘약- 금이 가 있어 보이지 않자 주먹으로 쳐 낸다.  
전방에 장철이 차를 빼내려고 바둥거리고 있는게 보인다.  
순간, 이상한 냄새에 삼촌이 뒤를 돌아보면...  
차 안에 세팅됐던 제조도구들이 엉망진창으로 흩어져 있는 게 보이고,  
염산에 피텔린 통이 찌그러져 내용물이 흐르고,

그 옆에 비이커 아래의 인화성 화학약품 위로 떨어질듯말듯...하고 있다.  
다시 장철을 바라보며...흘러내리는 쌍코피를 쓰윽- 문지르더니,  
'씹새끼!' 욕을 내뱉는 삼촌의 눈에 순간 광적인 빛! 이 흐른다.  
삼촌, 부웅- 후진을 하더니.

### 삼촌

(일단 기어를 넣으며 중얼) 부처님...약에 대한 미련은 훨  
훨 타서 재가 되게 해주이소...

### 113. 실내외. 도경장 차 + 상도 차 교차 - 밤 (인트로)

평음을 내며 달리는 두 대의 차...유리창을 통해 서로 보며,  
도경장, 오른 팔을 수건으로 감싸며 하얀 설태가 긴 헛바닥을 쑥- 내민다.  
상도, 뭐라구 마구 욕을 해대는데 들리지 않는다.  
그러던 순간, 둘 다 전방에 광경에 눈알이 커진다.  
봉고차가 장철의 차를 향해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게 보인다.

### 도경장

(충혈된 눈알을 부라리며) 스톱!!!!

### 상도

(눈알이 커지며) 삼촌!!!!

### 114. 실외. 감천향 - 밤

충돌의 순간, 쿠우왕- 귀를 찢는 폭발음!  
빌딩만한 불기둥을 내며 사방으로 파편을 튕기고 산산조각나는 두 차량과  
주변의 시설물들.  
삼촌과 장철의 모습 어느새 불기둥 속에 사라지고...  
도경장과 상도...상상도 못 한 엄청난 파워의 폭발 앞에 차를 세우고 넋을  
잃는다.

차에서 나오는 상도, 하늘로 치솟는 검은 구름 앞에 절망하며 주저앉는다.

도경장 역시 처참한 얼굴로 차에서 내린다.

검은 재가 마치 함박눈처럼 하늘을 가득 메우고 쏟아져 내린다.

상도와 도경장, 검은 재를 맞으며 허탈한 심정으로 미동도 않고 있다.

반쯤 탄 삼촌 모자가 상도 눈 앞에 툭- 떨어지고...

도경장, 터벅터벅 상도 옆에 다가와 모자를 보다가 망연자실한 상도 어깨에 손을 얹는다.

지진이 지나간 직후처럼 그런 명한 순간이 이어지는데...

화염이 일고 있는 항구의 철조망과 파손된 시설물 사이에서 뭔가 검은 물체가...꾸물꾸물...움직인다.

도경장과 상도, 뭐지?...하고 물체를 골똘히 바라본다.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은 장철...물에 빠진 쥐새끼모양으로 엉금엉금 해엄쳐 나온다.

폭발의 순간 천운으로 차에서 튕겨나가 바닷물에 빠진 듯...참으로 질긴 장철의 생명력!

멍하니 바라보던 도경장, 도리도리 머리를 흔들고 쿵쿵- 주먹으로 때리더니 금방 정신을 차린다.

그리곤 후다닥- 달려가 장철의 손에 수갑을 채워 철조망에 고정시킨다.

상도, 이글이글 타는 눈빛으로 장철을 노려보며 다가간다.

주먹과 발로 장철의 얼굴과 배를 가격하는 상도.

장철, 피를 토하며 힘없이 고꾸라진다.

## 상도

(발길질 하며) 개새끼! 닌 인자 죽었으!

## 도경장

그만 해 임마!

도경장, 상도를 제지한다.

맥 없이 널부러진 장철을 내려보는 도경장과 상도...

드디어 장철을 잡은 둘...나란히 서서 포획한 먹이를 본다.

도경장, 점점 얼굴에 화색이 돌고...

상도, 장철을 향해 훼- 침을 뱉으며 헉헉...가쁜 숨을 몰아쉰다.

그런데...서서히 진정이 되어 갈 수록...둘 다 사태 파악이 되기 시작한다.

도경장...스으윽-고개를 돌려 상도를 바라본다.

불 타는 봉고차를 힐끗 본 상도, 고개 돌려 도경장과 눈이 마주친다.

상도, 슬슬 뒷걸음질 치는데, 철컥-!

도경장이 어느새 수갑 하나를 더 꺼내 상도의 손목에 채운다.

상도, 황당해서 손목에 수갑과 도경장 번갈아 보면.

### 도경장

(실실 웃으며) 어데 가노...증거물 다 타뿔는데...이 새끼

죄를 입증할 유일한 증인이 어델 가노?

### 상도

(어이 없다) ...내 드가문...같이 죽는데?! 잊으셨나요? 강

장님 앞으로 각...서...?

### 도경장

(냉혹하게) 강제성 하에 진술...거 법적 효력 익다.

상도, 도경장을 노려보다 쟁싸게 차로 달려가 운전석에 몸을 던지는데,

도경장, 쏜살같이 달려와 상도의 귀를 불잡는다.

‘아-’ 비명을 지르던 상도, 도경장의 면상을 주먹으로 날린다.

턱이 훑- 돌아가는 도경장, 오른 주먹으로 상도를 때리더니 골절 부위가  
아파 찔찔매다가 발을 날려 상도를 걷어찬다.

상도, 강력한 연타를 맞으며 그 위력에 정박해 있는 소형 어선의 갑판 위  
로 나가떨어진다.

장철, 철망에 끌여서 눈 앞에 벌어진 상황을 예의주시한다.

## 115. 실외. 갑판 - 밤

도경장, 쟁싸게 갑판 위로 점프를 해 자기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는 찰나,

코너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듯 상도의 주먹이 다시 날라온다.

둘이 엉켜 뒹굴며 갑판 위가 아수라장이 된다.

수갑을 채우려는 놈과 빠져나가려는 놈의 치열하고 치사한 아귀다툼...  
손에 잡히는 데로 찌르고...깨물고...치고...맞으며...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는 상도와 죽을 힘을 다해 잡는 도경장...  
그렇게 몇분...기진맥진해서 바닥에 쓰러져 숨을 헐떡이는 둘.  
둘의 얼굴, 피와 땀이 범벽이 되고 부어올라 엉망이다.

### 상도

(누운 채로 헐떡이며) 씨바...놔요 쫌...난중에...대한민국 뿡  
쟁이 다- 잡아주께! 예?

### 도경장

(누운 채로 헐떡) 니 우짜피 드가거등? 내 쫌 살리주라!  
니 최대한 선처해주께! 응?

### 상도

씨바...짜바리새끼...입만 열었다카믄 줄줄이 그짓말...

### 도경장

니가 먼저 속였지 이 뽕쟁이새꺄! 니들 다 잡았으! 다 죽  
었으!

### 상도

내가 잡힐 거 같애? 잡아바 씨발롬아!

상도 비틀비틀 일어나는데 이미 도경장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발견하고  
벙-찐다.

도경장 헤헤- 웃는데 어느새 상도의 손에 도경장의 총이 쥐어져 있다.  
도경장, 놀라서 눈알이 커진다...낭패라는 얼굴을 하는데...순간, 경찰차의  
싸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상도, 당혹스러운 얼굴로 주변을 돌아본다.

부두 위에 도착한 경찰차들이 어선을 에워싼다.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나온다.  
검찰 차량에서 고검장이 나와 갑판 위를 바라본다.

### 117. 실외. 갑판 + 부두 교차 - 밤

#### 도경장

(부두를 보더니 다급하게) 촛맹아...니 장철이 길에서 만  
나든 뼈도 몬 추려! 경찰서 먼저 가서 증언하는 기 살 길  
이야! 그기 바로...우리 운명공동체 아이가?...응?

상도,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오른다.  
이성을 잃고 도경장을 구석으로 몰아세우며 총을 들이댄다.

경찰들 배를 올려보다 상도가 총을 든 게 보이자 놀라 웅성대기 시작한다.  
누군가 지휘자의 호통이 들리고 모두가 총을 뽑는다.  
고검장, 상황을 주시한다.

도경장, 총구를 보며 침을 끌꺽- 삼킨다.  
부두 위의 경찰들을 힐끗 보는 상도, 씨이발...절박한 신음을 낸다.  
몇 초가 흐르고...갈등...율분의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대세가 기울어진 상황을 점점 느낀다.  
상도, 팔뚝으로 눈물을 닦아낸다.

#### 상도

(체념의 웃음) 쭉큭...씨이발...

부두 위의 시점 하나가 선박의 설치물을 지나 들에게 다가간다.  
일촉즉발의 긴장이 흐른다.

#### 상도

(냉정을 찾으려 애쓰며) ...대신에...내 나오믄...그 땐 증말  
볼 일 없다!...나오믄...니 같은 짜바리 없는 테서 살기라!

그 때는... 나는 내 꼬마덜하고 놀기라! 죠타-! 드간다!!

### 도경장

(다급히) 인자 머리 도네 장사꾸운-! 낸 죽을 때까지 니  
와 함께 갈란다-!!

증오의 눈빛으로 서로를 노려보는 둘...

그러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피식- 둘이 웃음을 터뜨리고 상도가 총을 건네는 순간,

타-앙- 귀를 찢는 총성-!

흠칫- 놀라며 눈을 질끈 감는 도경장.

짧은 순간이 지나고... 눈을 뜨다가 혁- 놀라며 상도를 쳐다 본다.

도경장을 명하니 바라보는 상도의 얼굴...

부릅뜬 눈에서 눈물 한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고계장, 막 방아쇠를 당긴 자세에서 바로 서며 배 위를 바라본다.

경찰들 놀라서 입을 헤- 벌리고 배 위의 상황을 주시한다.

상도의 얼굴 정면을 보여주던 화면, 서서히 측면으로 돌기 시작한다.

천천히... 드러나는 관자놀이...

아이 주먹만한 구멍이 뚫려 붉은 피와 김이 오르는 뇌수가 함께 흐른다.

순간 상도의 몸뚱이, 힘 없이 옆으로 쓰러져 바다로 떨어진다.

도경장, 수갑 찬 손목이 떨려들어가다 선체를 불잡고 벼틴다.

수갑이 손목을 파고 들며 피가 흐르자 도경장, 가까스로 열쇠를 꺼내 수갑  
을 푼다.

蓬덩- 바다에 빠지는 상도의 시체...

물거품을 일으키며 사라졌다가 등을 드러내며 곧 다시 떠오른다.

시체 주위의 짓푸른 바다가 점점 붉은 피로 물든다.

도경장, 한 구석에서 손목에 응급처치를 받으며 침울한 얼굴로 담배를 피고 있다.

경찰 서넛이 물에 떠 있는 상도의 시신을 향해 배를 움직이고 있다.

미간을 찌뿌리며 상도의 시체를 바라보던 도경장, 시선을 거두는데...

도경장의 눈에 검찰차량 뒷자리에 앉아 너구리같이 담배 피는 장철의 모습이 들어온다.

장철, 도경장의 시선을 느끼자 조금 열린 차창 사이로 손가락만 내밀어 풍- 담배 튕겨버리더니 창을 닫으며 스을-쩍 입가에 비웃음이 배인다.  
도경장의 충혈된 눈알이 떨린다.

그 때, 도경장 옆을 지나치던 고계장이 멈춰 서더니.

### 고계장

(경멸조로) 어이~ 콩나물...나한테 목숨 한 번 빚겼네...

냉정하고 씨늘한 시선으로 도경장을 보다가 고계장이 돌아서 가는 순간,

날렵한 동작으로 고계장의 총을 뺏어 드는 도경장.

고계장의 얼굴을 총으로 겨누는 도경장.

고계장 그 자리에 굳어서고 주변의 형사와 경찰들 우르르 원을 그리며 물러선다.

고계장을 노려보는 도경장, 씨익- 웃다가...

순간, 흑- 총구를 들리더니 비틀비틀 걸어가며 장철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탕- 탕- 탕- 탕- 타앙- .....갈긴다.

차유리 산산조각나며 장철의 살점과 뼈조각이 튀어 피범벅이 된다.

귀청을 찢는 소음이 잠잠해지고...

장철의 시체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도경장, 문득 바다를 보니 일출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침햇살이다...

### 도경장

(눈을 깜빡 깜빡) 아름답네...

영화 내내 야수만 같던 도경장의 얼굴,

눈물이 팽- 고인 채 패배자의 슬픈 그것이자 동시에 환희를 맞이하는...

장면전환.

물에 떠 있는 상도의 시신.

경찰 서넛이 시신을 건지기 위해 막대기질을 한다.

상도의 등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화면, 물 속에 잠긴 상도의 얼굴로 오버랩 된다.

눈을 뜨고 바다 속에서 뭔가를 찾는 듯 한 상도의 얼굴이 보인다.

순간, 상도의 몸뚱아리 갑자기 허우적허우적 마치 늪을 건너듯 피바다를 휘저으며 경련을 일으킨다.

막대기질을 하던 경찰들 ‘어우~’ 하며 놀라서 뒤로 물러선다.

그러다 동작이 점점 작아지며...찾아들며...조용히 멈춘다.

상도의 시신에서 화면 빠지면, 넓은 바다가 일출의 장관을 이루고 있다.

### 119. 엔딩 몽타쥬

음악 흐르고 엔딩크레딧 올라가며 보이는 화면.

장관의 바다에 신문기사가 오버랩된다.

2000년 1월 00일자. 부산일보.

< 마약조직 중간 판매상 이상도씨 검찰 검거 과정에서 사망 >

화면 빠지면 사회면 구석의 작은 삼단 기사임을 알 수 있고 더 빠지면 잡다한 사건사고 기사들이 빼곡하고...그 사이에 상도의 기사 묻힌다.

순간, 신문을 밟아 뭉개며 미친 듯이 움직이는 성근의 모습으로 화면 변하고, 씬 17처럼 사방을 뒤져 난장판이 된 상도의 오피스텔 보인다.

순간, 냉동고 안에 가득 쌓여 있는 오징어 더미 속 내장을 들추자 교묘히 감춰져 있는 6키로의 덩어리들.

땀에 범벅인 성근의 얼굴에 광적인 웃음이 번진다.

화면 바뀌면 수양 유흥가.

차에 탄 성근이 오토바이에 탄 고사바리와 함께 씬5의 상도처럼 이중 판매방식을 벌이는 모습이 보인다.

시뻘건 욕망을 분출하는 수양 유흥가의 광경이 화면에 가득 찬다.

- END -